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경희한의원

감기 / 성장 / 관절통 / 교통사고

월~토 벨뷰 425-818-8248, 11418 NE 19th St (OL 병원 위)
예약필수 린우드 425-640-7585, 3333 184th St SW (H Mart 옆)

JP INSURANCE 박정연보험

자동차, 사업체 보험, 메디케어



Tacoma 253-228-5295

Federal Way 253-335-3895

JOO FAMILY CLINIC 주 패밀리 클리닉

• 소아진료 • 부인진료 • 보톡스·필러
• 성인진료 • 노인진료

Open Hours
Mon: 9am-6pm
Tue-Fri: 8am-6pm
Sat: 8am-1pm

425.409.9247 kk@joofamilyclinic.com
www.joofamilyclinic.com

22618 Hwy 99, #106 Edmonds, WA 98026 (부한플라자)

THE ONE LOGIS, theonelogisllc.com

하나통운

후회없는 선택, 꼭 비교해 보세요!

위성트럭 최대 한인운송업체 / 한인이사인력 운영
• 택배 • 이사 • 수,출입운송 • 창고보관 • 자체 통관사 운영
253-872-8181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GOOD DR. CHIROPRACTIC
교통사고 · 디스크 · 만성요통 · 스포츠 상해 · 족관절
두통 · 척추관절 교정 및 전신 통증 치료전문
예약 전화 :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Lynnwood, WA 98036



"지난 한 해 5명이 떠났다" ...대한부인회, 6·25 참전용사 '봄날 오찬' 개최

3월 27일 에버렛에서 개최...서북미지역 생존 참전용사 12명 포함 35여 명 참석
박명래 이사장·시애틀 총영사관 구광일 영사 축하...대한부인회에 감사패 수여

대한부인회(KWA·이사장 박명래)가 3월 27일 정오 에버렛 V-스타 뷔페에서 서북미 지역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초청한 '봄맞이 합동오찬회'를 개최했다. 대한부인회 후원으로 열린 이 행사는 서북미 6·25 참전 국가유공자회(회장 윤영목)가 주관했으며, 에버렛부터 타코마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생존 참전용사 12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전용사들이 식당에 입장하고 있다.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아데일리 김승규 기자> <관련기사 Page-17>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 Haninsosik

미디어한국, 스포츠서울, 코리아타운데일리, 우먼즈 전자신문을 한 눈에 로컬뉴스, 미주뉴스, 한국뉴스, 전문가칼럼, 비록시장까지

몽골 직수입 최고급 순모 SLEEPING CAMEL
특상급 명품 쌍봉낙타 순모

Premier Wool

VVIP 고객들의 재구매율 1위제품

타코마: 253.227.8586
페더럴웨이: 253.232.9277
린우드: 206.670.8654



2027년 통합업소록과 함께하세요

통합한인업소록

리스팅·광고접수

www.haninsosik.com



문의 : 206-779-5382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친절한 김양미 보험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더 잘 맞는 플랜이 있는지 상담하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로 예약하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립니다."

다년간 의료
통역 경력

☎ 206-679-8301
✉ getcare8282@gmail.com

메디케어전문

등록기간
10월15일~12월7일

- ✓ Medicare
- ✓ Medicaid
- ✓ Tricare care for life specialist
- ✓ ACA(오바마케어)

Best Choice REALTY

■ 주택

■ 비즈니스

■ 커머셜

■ 상담환영



살때도, 팔때도!



권미경 부동산

253.335.5301

Managing Broker MiMi Kwon

E: mimibestchoice@gmail.com

www.homesnap.com/Mikyoung-Kwon

YouTube 권미경부동산

Facebook: Mimi Kwon
Instagram: Mimikwon

Tumwater \$489,000



3 beds / 2 bath · 1,410 sqft

프라이빗 1.25에이커 단층 주택으로 모던한 전원 라이프를 누리면서도 1-5·쇼핑·코스트코 접근이 뛰어난 투머워 학군 내 희소 매물.

Tacoma \$548,000



3 beds / 2 bath · 1,582 sqft

잘 관리된 3베드·2베스 램블러, 최신 지붕·주요 업그레이드 완료. 넓은 보너스룸, 큰 마당까지 갖춘 조용한 동네의 즉시 입주 가능

Spanaway \$499,950



3 beds / 2 bath · 1,680 sqft

게이트 커뮤니티 세도나 내 3베드·2욕실 단층 주택으로, 오픈 플랜과 최근 리모델링을 갖춘 조용하고 접근성 좋은 실거주 최적 매물.

Seattle \$288,000



1 beds / 1 bath

유니버시티 디스트릭트 중심 1920년대 복원 콘도로, 렌탈 제한 없는 1베드+오피스 구조에 입지·수익성·클래식 감성을 모두 갖춘 희소 매물.

Olympia \$475,000



3 beds / 3 bath · 1,184 sqft

2카 차고 트라이레벨, 2018년 주요 리모델링 완료로 즉시 입주 가능. 퀴즈 주방, 스테인리스 가전, 미니스플릿 냉난방, 침실별 천장팬 포함. 넓은 펜스 마당·RV 주차·커버드 파티오, 1-5·JBLM·학교·쇼핑 인접.

■ Rent ■ \$2,800/월



미용실 하던 곳으로 마사지샵이나 어떤 용도로도 사용 가능, 교통량이 많고 큰거리에서 쉽게 보이는 곳

Bellevue \$2,595,000



4 beds / 3 bath · 3,692 sqft

1920년대 크래프트맨 감성에 맞춘 전면 업그레이드 주택, 화이트옥크 바닥·스테인드글라스·양면 벽난로·프렌치도어 등 클래식 디테일 완벽, 호숫가 끝자락의 조용한 위치, 리모델링된 주방과 레이크뷰 프리미엄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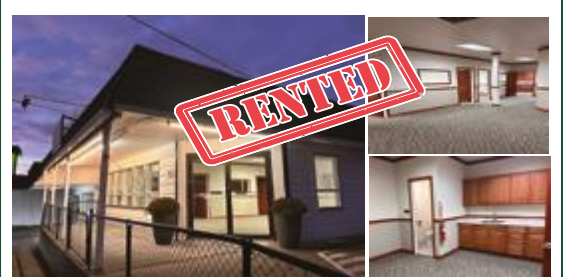
Newcastle \$2,479,900



5 beds / 4 bath · 3,244 sqft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Alterra 주택, 메인하우스+별도 게스트 스위트(홀오피스 활용 가능) 포함한 5베드 구조, 고대 카친, 프라이머리 듀얼 워크인 클로징, 대형 로프트, 커버드 야외공간까지 갖춘 고급 설계의 신축급 매물.

■ Office Rent ■ \$1,650/월+NNN



office room 5, 화장실, 주방 구비



박 · 쉬나 합동법률사무소

PARK CHENAURY AND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지금 전화하세요

대표전화

253-839-9440

www.parkchenaury.com



김벌리 윤

사무장

24년 이상 경력

253.344.7488



지나 김

사무장

16년 이상 경력

206.498.6040

오피스 시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사무장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 개인상해

Car Accidents

Personal Injury

법정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능숙한 변호사들!

고객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켜드립니다.

페더럴웨이 오피스:

2505 S 320th St. #100 Federal Way WA 98003
(320가 I-5 옆 검은색 유리빌딩 1층)

타코마 오피스:

3517 6th Ave. Tacoma, WA 98406

코웨이 시애틀 지점에서 인재를 모집합니다!

coway

안정적인 직장, 유연한 커리어

1. 코웨이 코드 / 코닥 0명

- 코웨이 고객 방문 및 정기적인 제품 관리 서비스 (코드/코닥)
- 렌탈/멤버십 회원 관리 및 필터 교환 서비스

★ 코웨이 코드 / 코닥이란?

- 코웨이의 첨단 기술과 제품을 통해 각 가정과 기업에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을 전하고, 행복을 지켜주는 웰빙 컨설턴트
- 정기적인 고객 방문을 통해 제품에 대한 하트 서비스 제공
-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 및 지속적인 관리로 회원 재창출

2. CT (코웨이 테크니션) 0명 채용 안내

- 코웨이 제품 설치 및 배송 & AS 서비스(CT)

3. 사무직 0명 채용 안내

- 물류 및 고객 서비스 업무
- 물류 및 고객 서비스 경력자 우대

- 근무시간: 월~금, 9~6시 (토요일 휴무) / 컴퓨터 사용 가능자 (엑셀, 파워포인트 필수)
- 혜택: 건강보험, dental, 비전, 생명보험, 유급 휴가(년 15일), 401K, Yearly Bonus

4. 세일즈 & 고객서비스 프리랜서

- 코웨이 제품을 판매하실 세일즈 프리랜서 모집

- 시간 되실 때 미팅 오셔서 코웨이의 비전과 수입에 관해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격 요건

- 고객의 의견을 차분히 경청하실 수 있는 분
- 운전면허증 소지자 (코드, 코닥, CT)
-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적극적이고 열정있는 분

지원 방법

mina@coway-usa.com 253-220-8893

- 이메일로 RESUME 제출 - 경력 및 업무 내용, 희망급여 기재
- 34012 9th Ave S #C3 & C4, Federal Way, WA 98003

조선용 보험 에서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 안내 - 지금 확인하세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

■ 메디케어 구성 안내

- 파트 A - 병원/입원 보장
- 파트 B - 외래진료, 검진 등 의료 보장
- 파트 C -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플랜 (파트 A와 B를 민간 보험사가 대신 관리, 추가 혜택 포함 가능)
- 파트 D - 처방약 보장

■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처방약 플랜 (MAPD)

- ☞ 파트 A, B, D 보장 ☞ 보험료 \$0부터 가능
- ☞ 최대 본인 부담금 도달 후 100% 보장
- ☞ 다양한 보장 수준과 약 코페이
- ▶ 단, 의사 네트워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 서플리먼트 플랜 조합도 선택 가능

■ 보험 등록 기간

- 초기 가입 기간: 65세 생일 기준 전후 3개월 포함 총 7개월
- 연중 가입 기간 (10/15-12/7): 새 플랜 가입 또는 변경,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
- 오픈 가입 기간 (1/1-3/31): 현재 어드벤처지 플랜 변경 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전환 가능, 약보험 등록 가능
- 특별 등록 기간: 이사, 퇴직 등 생활 변화 발생 후 2개월 내 변경 가능

■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 약보험 보조 프로그램

- 자격이 된다면 보험료 보조 가능!
- 듀얼 플랜 가입으로 추가 혜택 제공
- 근로소득이 있다면 수입 기준 완화 혜택

■ 가입 전 확인사항

- 주치의, 병원, 약국 계약 여부
- 복용 중인 약이 모두 보장되는지
- 1년간 약값 총 부담금 비교



조선용 보험 에서 메디케어 신청부터 메디케어 비용 보조 프로그램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425-951-9210

(주내과 옆)

4713 168th St SW Ste 103 Lynnwood, WA 98037





매튜 강사가 이끄는 에드몬즈 사물놀이패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에서 사물놀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이 페더럴웨이 한국식당 해송에서 한식 체험을 하고 있다. 교사들이 페더럴웨이 한국식당 해송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H-마트에서 한국 제품을 구입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사물놀이 장단에 어깨춤"…벨뷰 교육구 학생 100명, 교실 밖으로 나온다

벨뷰 교육구 6개 학교 100여 명, 3월 31일 한우리 정원·해송·H마트 탐방 에드몬즈 학군 비한국계 학생들로 구성된 사물놀이패, 공연으로 분위기 달궜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 대형 학교버스 3대가 페더럴웨이 한우리 정원 앞에 멈춰 섰다. 벨뷰 교육구 산하 6개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100여 명이 이지은·심우선 교사의 지도아래 버스에서 쏟아져 나왔다. 한 달간 교실에서 한국어와 한국 음식, 문화를 공부해온 이들이 마침내 현장으로 나온 것이다. 한국식 정원의 정자 건축물, 사물놀이 공연, 한식 점심, 한인 마트 체험으로 이어진 이날의 필드트립은 단순한 소풍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 교육의 현장이었다. 이날 행사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한우리 정원과 동해정을 배경으로 펼쳐진 사물놀이 공연이었다. 공연을 이끈 것은 에드몬즈 학군 소속 매튜 베누스카(Matthew Benuska) 강사와 그의 학생

들이었다. 6~12학년 학생 6~8명으로 구성된 이 사물놀이패는 대부분 비한국계로, 매마운틴 테라스 고등학교에서 매주 화·목요일 무료로 연습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2012년 에드몬즈 학군 여름 음악 학교의 품물 선택과목으로 시작됐으며, 2022년 가을부터는 방과후 과정으로 확대됐다. 매튜 강사는 공연 전 학생들에게 약기 하나하나가 자연 현상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쟁과리는 천둥, 징은 바람, 장구는 비, 북은 구름을 각각 나타낸다. 설명을 들은 벨뷰 학생들은 공연이 시작되자 절로 어깨춤을 추며 장단에 몸을 맡겼다. 한국계 학생 한 명은 "미국인들이 이런 공연을 하니 새롭고 다른 외국인들도 우리 문화를 알아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매튜 강사는 "이런 리듬을 소개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방법이자, 한국계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비한국계 학생들에게는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사물놀이 공연 이후 학생들은 인근 페더럴웨이 한국식당 해송으로 이동해 점심을 먹었다. 된장국, 김치, 나물 등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음식들이 상에 올랐지만, 식당이 준비한 모든 음식이 동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점심 식사가 끝난 뒤에도 투고 박스에 음식을 따로 챙겨가는 학생들이 생길 만큼 한식에 대한 호감이 높았다. 이어 방문한 H마트에서는 수업 시간에 배운 맛 표현들을 직접 제품 패키지에

서 찾아보고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학생들은 K-뷰티 제품 코너에 특히 큰 관심을 보였고, 김밥과 스낵류 앞에서도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인 마트라는 공간 자체가 지역사회에 깊게 자리 잡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됐다. 이번 필드트립을 기획한 교사는 "3월 한 달간 교실에서 한국 음식과 문화를 공부했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며 "지역사회에서 직접 만나고 경험하면서 살아있는 학습이 되도록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필드트립은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Odle, Tillicum, Highland, Chinook, Tye 5개 중학교와 벨뷰 디지털 디스커버리(Bellevue Digital Discovery) 등 6개 학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은 평소 화면으로만 보던 교사와 다른

학교 친구들을 직접 만나 그동안 배운 것을 함께 연습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벨뷰 디지털 디스커버리의 톰 듀엔왈드(Tom Duenwald) 교장은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언어를 경험하게 하고, 한국어와 가족적·문화적 연결고리가 있는 학생들은 물론 단순히 한국에 관심 있는 학생들 모두를 지원하고자 했다"며 "한우리 정원에서 페더럴웨이시와 한인 커뮤니티, 나아가 한국과의 교류 관계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교는 현재 온라인 한국어 프로그램은 4번째 운영 중이며, 한국어 과정은 개설 2년차를 맞고 있다. 학생들은 다음 날 각자의 교실로 돌아가 이날 보고 듣고 맛본 것들을 돌아보는 발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필드트립의 경험을 언어로 정리하고 나누는 이 과정이야말로 살아있는 학습의 마지막 퍼즐이다.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아데일리 김승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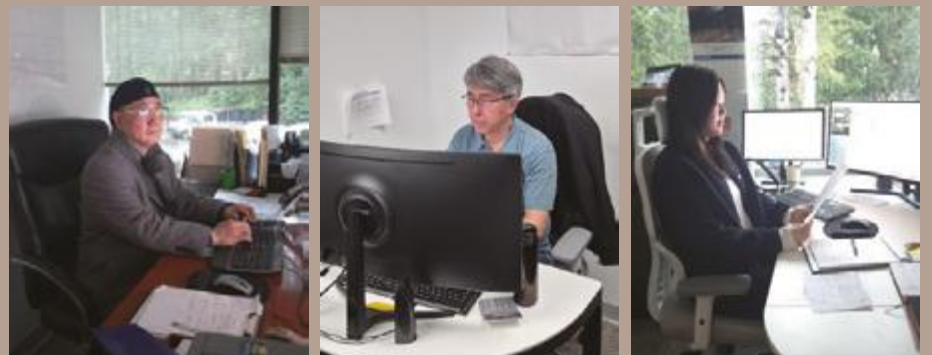
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나요? 저희는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끝까지 싸웁니다.



Auto Accident Personal Injury (교통사고/개인 상해)

Immigration Law (이민법)

Speeding/DUI (속도위반/음주운전)



경력 많은 전문 변호사 2인이 교통사고·이민법을 집중 대응합니다.

- ▶ 사고 피해, 억울하게 당하지 마세요
- ▶ 최대 보상, 끝까지 책임집니다
- ▶ 무료 상담 | 성공보수제
- ▶ 승소 전까지 비용 부담 ZERO

Joseph Sim(Director) : 253-222-8888 after hours WWW.ACCSEATTLE.COM
Main 오피스: 206-414-2750 / 팩스: 888-844-7339 ADLG.FED@GMAIL.COM

ONDemand KOREA
TV Box

우리클리 **Kooli**



**합법적으로 미주 No.1
한국방송 시청하세요.**

미국 내 최다 시청 ODK TV Box!
이제 거실에서 간편하게 TV 로 보세요

고화질! 저렴한 가격! 무약정! 무료렌탈!

\$19⁹⁹/월

최다 채널 보유, 실시간 서비스, 스마트폰/패드/PC 에서도 이용 가능.



ODK BOX

FREE

최대 합법 IPTV 한국 방송
지금 1년 서비스 구매하시면

\$100 Smart TV BOX 무료!
온디맨드 프리미엄 멤버십 무료!

ODK BOX 단말기 증정 이벤트는 무엇인가요?

ODK BOX 서비스를 통해 한국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선 전용 단말기가 필요한데, 단말기는 \$100에 구매하거나, \$50 보증금을 맡기고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에는 1년 구독하시는 분에 한해 **\$100 상당 전용 단말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년 서비스 사용료 또한 240불에서 180불로 할인**해드립니다.

ODK BOX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ODK BOX는 셋톱 박스로, **아무런 종류의 TV에 기기만 연결**하면, 모든 ODK 콘텐츠를 큰화면에서 리모콘으로 더욱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ODK BOX만의 특별한 혜택

최신/구작 다시보기 + 실시간 + 100개 채널제공
무약정 / 단말기 무료렌탈
All in One(티비,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에서 시청 가능)
온디맨드코리아 PREMIUM 멤버십 제공(동시 시청 최대 5명)

ODK BOX CARE +

친절한 한국어 기술지원, 설치 안내 및 상담, 단말기 무상교체, 안심케어

린 우 드 : 253-230-7928 (정관장 린우드)
에드몬즈 : 425-773-3525 (Ace Life USA)
페더럴웨이 : 253-232-9277 (K-Beauty)
타 코 마 : 425-760-1773 (OTA World)
벨 뷰 : 425-760-1773 (OTA World)

우린 거실에서 편안하게
티비로!
우리클리 **Kooli**



나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ONDemand KOREA
PREMIUM Membership


시애틀한국문화센터

즐거움이 시작되는 노래방 문화센터 오픈!


노래교실 동호회 **월요일** 11시~12시 


생활영어 **일요일** 5시~6시30분 

재봉틀 **시간미정** 

라인댄스 **목요일** 10시30분~11시30분 

스페인시 클래스 **수요일** 10시 

컴퓨터 **월요일** 10시30분~12시 

라중바 댄스 **화·토 10시~11시**
목 10시30분~11시30분 

통기타 노래&동호회 **목요일** 5시~6시 

※소정의 수강료가 있으며, 선택하신 과목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싱글모임 공고
매달 셋째주 일요일 오후 5시
“지치고 외로운 당신을 위로하세요”

[강사 초빙]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오.
시니어 분들께 재능과 시간을 나눠주실 강사님을 모십니다

- ▶ 전문 기술직: 현장 실무 관련 강의 가능하신 분(예:생동, 전기,컴퓨터)
- ▶ 음악/예술: 악기를 다루시는 전공자 (예:피아노,바이올린,첼로,드럼, 미술)
- ▶ 그 외: 어떤 분야든 교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가진 분

미국 생활 수십 년, 이제 당신의 곁을 채워줄 소중한 인연을 만나세요”
이국땅에서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에 마음 둘 곳 없으셨나요? 사별과 이혼의 아픔을 겪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한 분들을 모십니다.

- 누가: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중장년 싱글 남녀 ■ 어디서: 새소망교회 (신앙과 관계없이 누구나 환영합니다)
- 무엇을: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과의 대화, 그리고 새로운 인연 찾기다.
- 특징: 편안하고 재미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미 수차례 모임이 있었고 좋은 커플과 좋은 친구사이드들이 탄생할것입니다.

시애틀한국문화센터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문의 및 등록: 206-759-0125



kcbmcusa.com

제3차 미주서부 KCBMCUSA
2026

대회 Seattle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말씀과 전도, 양육

(로마서 12:2)

Come & See ! Kingdom Of God

주
강
사



오정현 목사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이사장
서울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권 준 목사
전 서울 은누리교회 부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목사
중앙기독교학교의 이사장
수원 원천침례교회 담임목사



대회 등록

2026년 5월 7일-9일

FEDERAL WAY PERFORMING ARTS & EVENT CENTER

31510 Pete Von Reichbauer Way S.
Federal Way, WA 98003



4박5일 선착순 200명 모집
알래스카 3대빙하관광

관광내용: 숙박4박5일 ▶ 바다, 산
육지빙하관광 맥켄리 경비행기/트램



5박6일 선착순 100명 모집
'캐나다 힐링 투어'

관광내용: 숙박 5박6일 ▶ 장수마을
캔모어, 설산 밴쿠버+록키산맥 투어



투어 일정

CBMC 미주서부총연합회

오운호 총회장 (206) 769-4141
윤요한 부회장 (907) 884-1080

서용환 서북부연합회장 (206) 919-3748
최명희 시애틀지회장 (206) 227-0700

같은 집도 누가 파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집을 사고 팔 때, 전문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Eastside 전문 부동산 벨뷰 커블랜드 레드먼드 바셀 켄모어 사마미쉬 이사콰



정확한 시세 분석



빠른 매매 진행



리모델링 상담

투자용 거주용 용도에 따른 전략적 진행

엠 마 부동산

좋은 매물이 항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고객님께 맞춤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mma Park 206-688-0780 | Emmapark0780@gmail.com

이영이보험

- ✓ 곧 65세가 되십니까?
- ✓ 직장보험이 종료 되십니까?
- ✓ 타주에서 이사오셨거나 거주지가 바뀌셨습니까?
- ✓ 파트 D(약보험)으로 Extra Help를 받으십니까?
- ✓ Medicare와 Medicaid를 소지 하셨습니까?

*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스페셜 가입기간에
Medicare Advantage(Part C)나
보충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욱
친절한 상담과 안내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영이 보험이 여러분의
올바른 메디케어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
상담전문**

Licensed Insurance Agent
206.407.8478
206.250.2760
youngyi712@gmail.com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라이선스 보유





원스탑 ADU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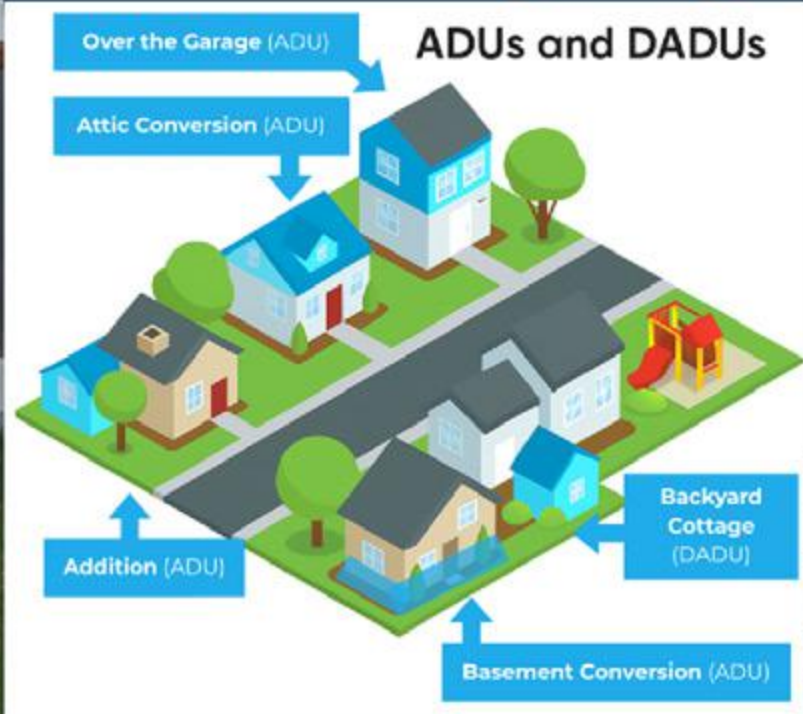
부지 검토부터 공사비 용자, 시공까지 한 번에

<p>Step 1</p> <p>조닝 및 부지 적합성 검토</p>	<p>Step 2</p> <p>자금 조달 구조 설계</p>	<p>Step 3</p> <p>전체 진행 과정 안내</p>
 <p>부지가 ADU 건축이 가능한지, 관련 조닝 및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p>	 <p>5% 다운페이먼트 옵션을 포함해 최적의 금융 구조를 설계해드립니다.</p>	 <p>허가부터 공사까지 필요한 일정과 절차, 리소스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p>

무료로 ADU 사전 검토를 받아보세요!

Alabaster Contracting과 상담하고, 부지 적합성, 예상 공사비, 공사비 용자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206) 512-0959 한국어 가능



왜 ADU 투자, 지금이 적기인가?

- ✓ 워싱턴주 주택 공급 부족 심화
- ✓ ADU 친화적 법규 확대
- ✓ 자격 요건 충족 시 5% 다운 가능
- ✓ 임대수익 및 자산가치 상승 기대



 <p>Expert Zoning Reviews</p>	 <p>5% Down Financing</p>	 <p>Vetted ADU Partners</p>	<p>Alabaster Contracting contact@alabaster.llc (206) 512-0959</p>
--	--	--	--



드림투어
Cruise & Travel
꿈같은 여행을 드림, 드림투어

31434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206-200-3113 페더럴웨이 H마트 건너편
(전화/문자 상담 가능)

TALK 카톡으로 빠른 상담하기 실시간상담
드림투어

최저가 항공권 **앗! 항공권이 인터넷보다 싸다!!**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 크루즈 ● 항공권 ● 투어 ● VIP의전 ● 연수 ● 버스대절

선사 인증 크루즈 점유율 1위

알래스카 크루즈

BEST CHOICE
강력추천
시애틀 출발부터 도착까지 드림 인솔자 동반

생각만해도 가슴 설레이는 Best 유럽여행

Last Call 한정특가!!! 크루즈 ONLY

5/25 \$559	9/25 \$698
5/7 \$679	5/17 \$869

7/18 여성 룸조인 1명 가능!

크루즈로 만나는 위대한 땅, 알래스카 꿈꾸는대로 펼쳐지는 장엄한 빙하속으로!

5월3일 출발 9박 10일

서유럽 완전일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바티칸)

- ▶ 전일정 4성급 호텔 숙박, 모든 옵션 포함
- ▶ 서유럽에서 맛봐야 할 요리, 특식제공
- ▶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 등정
- ▶ 로마 안에 작은 도시 바티칸 시국 관광
- ▶ 이탈리아 로마 벤츠투어 포함!

8일 알래스카 크루즈 . 글레이셔베이

시애틀 > 주노 > 스캐그웨이 > 글레이셔 베이 > 케치칸 > 빅토리아 > 시애틀
5월 9, 16, 23, 30 6월 6, 13, 20, 27 7월 4, 11, 18, 25 8월 1, 8, 15, 22, 29 9월 5, 12, 19

8일 알래스카 크루즈 . 도스빙하

시애틀 > 케치칸 > 엔디콧암/도스빙하 > 주노 > 스캐그웨이 > 빅토리아 > 시애틀
5월 3, 24, 31 6월 7, 28 7월 28 8월 2, 9, 16, 30 9월 13

10일 알래스카 완전정복 크루즈

시애틀 > 앵커리지 > 마타누스카빙하 > 스워드 > 휘티어 > 허버드빙하 > 글레이셔 베이 > 스캐그웨이 > 케치칸 > 벤쿠버 > 시애틀
5월 20 9월 10

시애틀에서 떠나는 만인의 버킷리스트, 꿈같은 알래스카 크루즈 빙하 대장정!

여성 룸조인 1명 가능!

\$4,290 시애틀 왕복 항공,세금포함

국제 크루즈 연맹 인증 크루즈 전문 여행사 드림투어의 Partner 선사





청매실



330g

홍쌍리 청매실 농축액

\$149.99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회,
1회 3g 정도(차술갈 하나)
그냥 섭취하거나
음용수에 희석하여
꿀이나 기타 감미료를
혼합한 뒤 섭취

홍쌍리 청매실 농축액은 정성스럽게 재배한 매실을 씨앗 분리기에서 씨를 분리시키고 100% 매실즙만으로 가용성 고형분을 75% 이상으로 고농축 시킨 후 전동용기에서 숙성시킨 제품입니다.

홍쌍리 청매실원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매실을 올리고당과 7:3 비율로 배합하여 50년 이상된 전통 항아리에 넣어 발효 숙성시켜 만든 매실 원액으로서 몸에 이로운 구연산 등 각종 유기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가족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420ml x 2병

홍쌍리 청매실원 선물세트 2호

\$33.95



1.5Lt

홍쌍리 청매실원

\$54.95



420ml

홍쌍리 청매실원

\$19.95



홍쌍리 청매실



300g

젤리골드
\$5.99



300g

캔디골드
\$5.99

매실의 효능

- 피로회복
- 체질 개선
- 간장보호 및 간기능 향상
- 해독작용
- 소화불량, 위장장애 해소
- 갈증 해소
- 칼슘 흡수율 증가
- 살균, 살충작용
- 만성 변비
- 피부 미용
- 염증 제거



타코마 신신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실 세일즈를 구합니다. Email : twin0418@aol.com

또는 이력서를 가지고 내사바람

안락아도 싸게 파는
신신백화점 8726 South Tacoma Way
Lakewood WA 98499

구입문의

월-토: 10AM-7PM / 일: CLOSED

253-582-2975



권정종합보험 메디케어



대표 권 정

1. 최고의 서비스 Best Service
한국어 전용 클레임 서비스
2. 최저의 보험료 Best Price
여러 회사와의 비교로 인한 최저 보험료
3. 최고의 회사들 Best Companies
A 급이상 보험회사들로 견적비교



65세 다가오십니까?

귀하에게 적합한 메디케어 플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올해 65세(1961년생)가 되시는 분들
- 직장보험에서 나와 메디케어를 받으시는 분
-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 / 거주지가 바뀐 분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



SBI SEATTLE BEST INSURANCE INC
시애틀 베스트 종합보험

TACOMA OFFICE

9122 SO TACOMA WAY #108 LAKEWOOD, WA 98499
Fax. 253.473.1214
jeonghee@seattlebesti.com

Tel. 253.472.3977

LYNNWOOD OFFICE

18623 HWY 99 SUITE #240 LYNNWOOD, WA 98037
Fax. 425.741.3300
johnkwon@seattlebesti.com

Tel. 425.741.3600



윤영목 회장(왼쪽에서 2번째)이 대한부인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감사패를 박명래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참전용사들이 식당에 입장하고 있다.



종 데르론 이사가 감사선물을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다섯 명이 떠났다" .. 대한부인회, 6·25 참전용사 '봄날 오찬' 개최

3월 27일 에버렛에서 개최...서북미지역 생존 참전용사 12명 포함 35여 명 참석 박명래 이사장·시애틀 총영사관 구광일 영사 축하...대한부인회에 감사패 수여

대한부인회(KWA·이사장 박명래)가 3월 27일 오후 에버렛 V-스타 뷔페에서 서북미 지역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초청한 '봄맞이 합동오찬회'를 개최했다. 대한부인회 후원으로 열린 이 행사는 서북미 6·25 참전 국가유공자회(회장 윤영목)가 주관했으며, 에버렛부터 타코마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생존 참전용사 12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행사에는 참전용사와 가족, 대한부인회 이사진, 총영사관 영사, 그리고 언론사 대표 등 35여 명이 참석했다. 윤영목 회장의 사회로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애국가 제창의 순서로 엄숙하게 시작된 행사는 내빈 소개, 축하, 감사패 수여, 선물 증정,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박명래 이사장은 축하에서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짚으며 참전용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전쟁 하면 누가 이겼느냐 져느냐를 먼저 떠올리지만, 그 시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산다"며 "그 시간을 온몸으로 견뎌내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부인회의 성장 역사와 현황을 소개했다. "1972년 미군과 결혼한 한인 여성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도우며 대

여섯 명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전 지역 16개 사무소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매년 약 2,00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1,900명의 직원이 연간 200만 시간 이상 봉사하고 있다. 연간 운행 거리도 150만 마일에 달한다. 올해 예산은 8,900만 달러 규모다.

박 이사장은 "원로 이사님들의 조건이 20년 이상 삶을 대한부인회에 바치신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단체를 후배들이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참전용사들이 지켜낸 대한민국과 원로 이사들이 지켜온 대한부인회를 나란히 비유한 대목에서 참석자들의 큰 박수가 이어졌다.

이날 자리를 빛낸 참전용사들의 면면은 그 자체로 역사였다. 신도형 이사의 소개로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난 참전용사들은 문희동, 김한규, 정홍석, 길육은, 한학연 등이며, 이 중 97세의 이영주 용이 최고령으로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준회원으로 참전용사회 재무와 교통 지원을 맡고 있는 김영조, 김영철 씨도 자리를 함께했다.

타코마·페더럴웨이 지역 연락을 담당하는 이승래 권사와 전직 회장인 이창구 목사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길육은 용은 최근 보훈청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뒤늦게나마 수여받은 것으로 소개됐다. 윤영목 회장은 참전용사들이 에버렛에서

타코마까지 넓게 흩어져 있어 모이기가 매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런 자리가 성사될 수 없다"며 대한부인회의 차량 지원이 없었다면 이번 모임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대한부인회는 참전용사들이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직접 차량으로 모시는 이동 편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윤영목 회장의 답사는 자리를 가장 숙연하게 만든 순서였다. 1944~1945년 만주 여순(旅順)에서 중학교를 다니며 제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겪은 그는 "우리 세대는 전쟁을 두 번 겪었다"고 회고했다. 안중근 의사가 처형된 여순 감옥 인근의 여순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미군 B29 폭격기가 만주 제철소를 폭격하려 상공을 지나가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이 지역에서만 다섯 명의 참전동지가 세상을 떠났다"며 "이제 우리 남은 자들도 낙엽처럼 하나 하나 떨어져 6·25 참전용사회가 사라지겠지만, 우리가 피땀 흘려 나라를 위해 싸운 공로만큼 길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이 이날을 위해 직접 지어 낭독한 시 '그대는 참전유공'의 마지막 구절 "노병은 불사조로 죽어도 살아 있고, 그대의 충성심은 영원토록 빛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1954년 미국 포병학교 교육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타코마를 잠시 들렀던 당시를 회상한 윤 회장은 "그때는 한국 식당 하나 찾을 수 없었던 타코마가 이제 이렇게 한인 사회가 크게 자랐다"며 감회를 드러냈다.

구광일 주시애틀 총영사관 영사는 "올해 1월 올림픽아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를 함께 한 데 이어 봄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 기쁘다"며 박명래 이사장의 최근 리더십 유산상 수상을 거듭 축하했다. 또한 올해 보훈 행사 일정을 발표했다. 6월 20일 올림픽아 한국전쟁 기념식, 6월 25일 JBLM과 연계한 '6·25와 여성의 기여' 행사, 6월 27일 오리건주 월스빌 한국전 참전 기념 행사가 각각 예정돼 있다. 그는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한국 정부의 보훈 지원이 필요한 분, 또는 기억해 드려야 할 분을 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감사패 수여였다. 윤영목 회장이 "2003년 참전유공자회 발족 이래 지금까지 사랑과 온정, 헌신적 노력으로 본회 운영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는 내용의 감사패를 박명래 이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대한부인회 임원들도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손에 들려 드렸다.

이창구 목사의 식사 기도에도 앞서 그는 "전 미국에서 워싱턴주 대한부인회만큼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는 없다"며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하다"고 말해 참석자 모두의 공감을 얻었다. 따뜻한 봄날, 노병들과 후배 동포들이 함께한 이날 오찬은 전쟁의 기억을 잊고 감사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다.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아데일리 김승규 기자)

BUSINESS FOR SALE BY OWNER

SELLER 와 BUYER의 직거래 광고입니다.

<h2 style="margin: 0;">Dry Cleaner</h2> <p>매매가: \$300,000 연매상: \$400,000 렌트: \$5,260 지역: 페더럴웨이 문의: 253-334-9042</p>	<h2 style="margin: 0;">Dry Cleaner</h2> <p>매매가: \$400,000 연매상: \$500,000 렌트: \$6,700 지역: W. Seattle 문의: 206-313-1981</p>	<h2 style="margin: 0;">Dry Cleaner</h2> <p>매매가: \$320,000 연매상: \$420,000 렌트: \$4,500 지역: 커크랜드 문의: 425-647-9005</p>	<h2 style="margin: 0;">Teriyaki</h2> <p>매매가: \$150,000 월매상: \$35,000 렌트: \$4,250 지역: Monroe 문의: 425-273-4357</p>
---	--	--	--

사업체 매매 무료광고 문의: 206.229.6229 / E-mail:4989seattle@gmail.com

KW COMMERCIAL

TOP 10%
REAL ESTATE PRODUCER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이한나 부동산

주택 / 사업체 / 상업용 상가임대



Hanna Lee

Seller 특전
사업체 매매를 원하십니까?
MLS/CBA/BizBuySell
동시광고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422.4328
hannalee@kw.com
hannaleerealestate.kw.com

식당전문

이원규 부동산

253.941.4989 | 206.229.6229
wonlee@metrospi.com



초당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테리야끼

1. Auburn	일매상	\$1,700	렌트	\$7,500	\$15만
P Marysville	일매상	\$1,800	렌트	\$2,700	\$18만
3. Shoreline	일매상	\$1,200	렌트	\$5,100	\$13만
4. Seattle	일매상	\$2,200	렌트	\$3,800	\$25만
5. Kent	일매상	\$3,500	렌트	\$8,500	\$50만
6. Kent	일매상	\$1,800	렌트	\$3,900	\$18만
7. Seattle	일매상	\$600	렌트	\$2,300	\$7만
8. Everett	일매상	\$1,500	렌트	\$2,750	\$18만

햄버거/델리

1. Kent	일매상	\$2,000	렌트	\$6,000	\$25만
2. Bothell	일매상	\$900	렌트	\$4,100	\$9만

한식/일식/중식당

1. Seattle	일매상	\$2,000	렌트	\$3,200	\$16만	한식당
P Bellevue	일매상	\$4,000	렌트	\$8,500	\$65만	한식당
3. Redmond	건평	3,000sf	렌트	\$11,500	\$25만	한식당
4. Edmond	일매상	\$1,500	렌트	\$3,400	\$20만	한식당
5. Tacoma	일매상	\$4,000	렌트	\$4,500	\$55만	한식당
6. FederalWay	일매상	\$2,000	렌트	\$3,200	\$20만	한식당
7. Gig Harbor	일매상	\$4,500	렌트	\$10,500	\$65만	일식당
8. Kent	일매상	\$1,200	렌트	\$2,900	\$12만	일식당
P Kent	월매상	\$8만	렌트	\$9,500	\$18만	일본 라멘
10. Edmond	일매상	\$2,000	렌트	\$4,200	\$30만	일본 라멘
11. FederalWay	일매상	\$1,500	렌트	\$3,700	\$15만	중식당

워싱턴주, 이민자 권리 보호 3개 법안 서명

KCSC 김주미 소장과 김원준 광역시애틀 한인회장 서명식에 참석 김주미 소장, "한인 및 이민자 커뮤니티에 실질적인 보호 제공"

워싱턴주가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를 한층 강화하며, 포용과 공공안전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조하고 나섰다.

밥 퍼거슨(Bob Ferguson) 워싱턴주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이민자 권리 보호 관련 3개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날 서명식에는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 KCSC(한인생활상담소) 김주미 소장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은 SB 6002, HB 2411, HB 2105 등 총 3건으로, 교육·의료·행정 서비스 접근부터 직장 내 이민 단속 대응에 이르기까지 이민자들의 일상과 직결된 권리 보호 장치를 담고 있다. 최근 연방 차원의 이민 단속 강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워싱턴주 주 차원에서 주민의 기본권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명식은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 리더와 옹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워싱턴주가 보다 포용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적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먼저 SB 6002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주민들이 교육, 의료, 공공 서비스 등 필수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민 신분이 불필요하게 노출되거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HB 2411은 사법 및 행정 절차 속에서 이민자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기관이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할 때의 기준을 정비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및 신분 정보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주민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또한 HB 2105는 직장 내 이민 단속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한 법안으로, 고용주가 연방 이민 당국의 현장 점검이나 조사를 받을 경우 이를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영장이나 적법한 법적 절차 없이 직원 정보나 사업장 접근을 허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민 노동자 권리와 사업장 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KCSC 김주미 소장은 "이번 법안 서명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및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실질적인



서명식 후 김주미 소장(왼쪽에서 2번째)과 김원준 회장(왼쪽)이 밥 퍼거슨 주지사(가운데)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호와 희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시애틀한인회 김원준 회장도 이날 서명식에 함께 참석해 상담소와의 연대 의지를 나타내고, 관련 법안의 취지

와 통과에 지지를 표했다. 한편 한인 이민자 태스크포스와 KCSC는 그동안 이민자 권리 교육, 커뮤니티 아웃리치, 법률 및 복지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지원해 왔

다. 이들 단체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더욱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권리 옹호 활동을 이어가며, 한인 이민자 사회의 안전망 확대에 힘을 계획이다. <미디어한국>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코대 + 코끝	350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지방흡입(복부)....	500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 ~ 1,000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함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Joyful
조이플

MISSION

2026

제 6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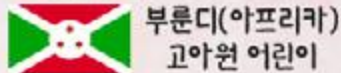
조이플 선교합창단
Joyful Mission Choir Concert

어린이를 위한 Charity Concert for Children

자선 음악회



Republic of Burundi



부룬디(아프리카)
고아원 어린이



Republic of Kenya



케냐(아프리카)
고아원 어린이



Ukraine



우크라이나(동유럽)
전쟁난민 어린이



Kingdom of Cambodia



캄보디아(동남 아시아)
빈민 학교 어린이

5월17일(주일) 오후 5시, May 17th(Sun) 5pm

타코마 중앙 장로교회(TCPC)

8001 PINE ST S, LAKEWOOD, WA 98499



대표 장현자 목사



음악 디렉터 조혜경



지휘 박상영



반주 김지영

주최 | 조이플 선교회
JOYFUL MISSION

주관 | 조이플 선교 합창단
JOYFUL MISSION CHOIR

253-223-7560 www.joyfulmission.org

협찬 | 미디어 한국, 시애틀 기독교일보, 라디오 한국



가짜 판사 · 가짜 법정까지... 이민자 노린 사기 급증

가짜 로펌 · 보석금 사기 확산... 전문가들 "SNS 변호사 검색 주의"

미 전역에서 이민자와 가족을 노린 사기가 갈수록 정교해지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연방 이민 단속 강화 분위기를 악용한 조직적 사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문가들은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냉정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지난 3월 27일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겨냥한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공격적이고 치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단순히 실제 변호사 이름을 도용하거나 가짜 로펌을 만들어 접근하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화상회의를 통해 이른바 '가짜 이민 법정'을 연출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부 사기범들은 실제 재판처럼 꾸민 온라인 화면에 가짜 판사를 등장시켜 구금된 가족의 보석 석방이 허가된 것처럼 보여준 뒤, 보석금

이나 서류 처리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설명이다.

전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보호국 소속 변호사였던 모니카 바카는 "이민 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가족이 갑자기 구금된 상황을 노려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 갈취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이 갑자기 구금되면 정보가 단절되고 극도의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그 틈을 사기범들이 파고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 케이트 다판 변호사는 "최근에는 변호사 이름을 도용하는 것을 넘어, 보석 석방 명령서와 영수증까지 위조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사건 결과를 보장한다'고 말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사기 신호"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민자 사회에서 이 같은 사기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문화적 차이도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멕시코나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변호사보다 공증인(노타리오)이나 이민 대행업체를 통해 각종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미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도움을 찾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바카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누구도 구금된 가족의 석방을 확실히 보장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풀려난다'고 장담한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는 이어 "체류 신분 문제로 불안한 상황에 있는 가족이라면, 평소 애용 은행 계좌 접근 권한을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공유하거나 위임장을 준비해 두고, 믿을 수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광고를 통한 변호사 섭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다판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에서 변호사를 찾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 광고 역시 사기일 수 있기 때문에, 광고만 보고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다판 변호사는 "은행이나 송금업체, 결제 앱에 즉시 연락해 거래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금액을 되찾을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접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두려운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나 지역 커뮤니티 기관을 통해 대리 신고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카 변호사는 "사기범들은 처음부터

큰 금액을 요구하지 않고, 착수금·서류비·보석금 등 명목으로 소액 결제를 반복 요구하면서 피해 규모를 키워간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민자 가족들이 평소부터 '위기 대응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구금 상황 발생 시 누구에게 연락할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변호사나 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위기 상황에서 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자 권리 및 법률 지원 관련 정보는 전국이민법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와 법률지원정의센터(Legal Aid Justice Center)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한국)



당신은 늘 가족을 돌봐왔습니다 사전 준비의 선물을 전하세요.

제공하는서비스

화장서비스
전통장례방식
3개의예배당
관
유골함

장례식화환
서비스프로그램
대형묘소
정원같은묘지
음식제공서비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Sung Yun(윤성근) - 253-334-8834 Sung.Yun@NSMG.com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을 이용해보세요!



만성 질환 수술

더이상 불편함을 참지 마시고 치료 하세요!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휴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치질
(1-3일)

자궁
(2-6일)

유방
(2-5일)

척추
(1-5일)

편도선
(1-5일)

담낭용종(담석)
(2-4일)

요실금
(2-4일)

갑상선
(3-4일)

관절(어깨, 무릎, 고관절등)
(3-14일)

암수술
(5-14일)

탈장
(2-3일)

난소
(2-3일)

전립선
(1-14일)

하지정맥류
(1-3일)

※ ()입원기간 표기 :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증양대학교병원(흑석역)

서울부민병원(가양역)

강남병원(기흥역)

H+양지병원(신림역)

세란병원(독립문역)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휴람의료네트워크병원은 휴람 고객을 최우선으로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진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수면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오전 4시간 49만원 - 110만원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14시 ~ 명일 12시경 퇴원 65만원 - 110만원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14시 ~ 명일 12시경 퇴원 115만원 - 186만원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10만원 - 320만원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2일간 진행(오전에만 검사 시행) 462만원 - 485만원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 | |
|-------------------|-------------|
|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 세란병원(독립문역) |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 광동병원[양방&한방](봉은사역) | |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시애틀 지회장인 공흥기 목사가 기도를 하고 있다.



김원준 회장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 회장이기도 한 한용석 목사.



이창구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다.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이승만 박사 탄생 151주년 기념예배 개최

3월 28일 타코마 블루하우스서 열려...공흥기 회장 등 참석해 이승만 박사 공적 기려
광역시애틀한인회 김원준 회장도 참석해 린우드 타임즈와 K-스토리 확장 구상 밝혀

광역시애틀한인회 김원준 회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 탄생 151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균형 있는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린우드 타임즈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과 이민생활의 이야기를 미국 주류사회에 소개하는 'K-스토리 확장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28일 타코마 블루하우스에서 열렸으며,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시애틀 지회 공흥기 지회장이 주최했다. 이날 예배는 한용석 목사의 기도와 이창구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고, 광역시애틀한인회 김원준 회장과 샘 심 이사장이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김 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형성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은 단일한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출발과 자유민주주의의 형성 과정은 단일한 시각이 아닌 다양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며 "그가 치는 세대 간 균형 있게 전달될 때 더욱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역사적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또 광주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양한 경험과 관점이 공존하는 만큼 이를 폭넓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회장은 향후 활동 방향과 관련해 린우드 타임즈와 협력하는 'K-스토리 확장 프로젝트'도 소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이민생활 관련 이야기를 미국 주류사회에 소개하는 작업으로, 단

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 다큐멘터리와 저널리즘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다큐멘터리 작가이자 비주얼 아티스트, 커뮤니티 리더로서 DMZ를 중심으로 한 분단의 역사와 자유·평화의 의미를 담은 콘텐츠를 연재 형식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이야기는 특정 커뮤니티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K-스토리로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DMZ 콘텐츠에 대해서는 "DMZ는 단순한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자유, 평화, 그리고 선택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이러한 이야기는 미국 사회의 다양성 속에서도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준 회장이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시애틀 지회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인사회와 주류사회,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을 연결하는 '다양성 기반 스토리 플랫폼'으로도 확장될 전망이다. 김 회장은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공통의 이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다양성 속에서 더

넓은 공감으로 확장될 때 그 가치는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평화의 이야기가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한국>

① JEIL TV 제일티비 KOREA TV 한국 티브 방송 실시간 시청

58개 채널 실시간 생방송 제공 모든 채널의 재방송 시청 가능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생방송: 드라마, 오락, 영화, 뉴스, 스포츠, 어린이, 해외드라마, 종영드라마까지 풍부한 콘텐츠

KBS MDC SBS EBS tvN YTN Mnet inet-TV OCN CTS JEI 제능				
SBS	KBS	KBS2	MBC	EBS
연합뉴스	YTN	JTBC	MBN	CHA
TV조선	TVN	OCN	OCN Movies	OCN Thrills
SCREEN	EBS2	EBS English	TOONIVERS	KBS Kids
재능 TV	SBS GOLF	JTBC GOLD	SBS스포츠	KBS스포츠
MBC 스포츠	MBC 스포츠	JBC GOLF&스포츠	SPOTV2	SPOTV
SPOTV ON	CH NOW	TVN Show	TVN Story	INET
MNET	NATIONAL	JTBC2	FTV	바둑TV
BILLARDS TV	KBS joy	CHING	SBS PLUS	KBS DRAMA
MBC DRAMA	CNTV	PBC	BBC	CTS
BTN	MBC	SBS	KBS1	KBS2

가격할인 이벤트

3개월 \$ 90
6개월 \$ 180
1년 \$ 330

Set top Box ~~\$70~~ \$50

Free Shipping(미국 내 only)
Free Activation

Cell: 702-937-4616 Email: koreatvjeiltv@gmail.com 카카오톡: Koreatvjeiltv (문자 & 보이스톡 가능)

벼룩시장

J&J CLAIMS 지원자 모집

현재 J&J CLAIMS (www.carcrashwa.com) 팀에 합류할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모집 직무: 개인 상해 (자동차 사고 등) - 2명, 일반 소송 (법률 보조) - 1명
- ▶근무처: 다운타운 타코마 (IRS 빌딩 6층)
- ▶자격 요건: 영어/한국어 가능, 기본 컴퓨터 활용 능력 (MS Word, Excel 등)
-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00 - 오후 5:00
- ▶근무 환경: 실내주차장 제공, 깨끗한 주변, 안전한 근무 환경
- ▶페이조건: \$22~\$52.08 +
- ▶업무 내용: 고객 (병원 등)과의 소통/병원 및 고객 관련 문서 관리 및 정리

지원 방법: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를 sung@carcrashwa.com으로 제출해 주세요.

북경가든 주방장 구함

주방장 구함

타코마 팔도월드(Food Court)

253.588.2399

벨뷰 뮤직 아카데미

- ▶노래교실&동호회 - 음식도 박치도 괜찮대! 함께 즐겨요!
- ▶통기타 강의 - 초보: 실력에 맞춘 강좌. - 중급: 악보없이 기타칠 수 있습니다.
- ▶드럼 - 스트레스 날릴 파워풀한 리듬!
- ▶K-POP - 프로 아티스트 트레이너 -YG,PSY,김범수,성시경 등 대형 프로젝트 참여

206-306-6108

최첨단 페이스/바디케어 미용장비 판매

1. SMART Line Skin Care. 7-in-1 Skin scrubber, Lonto Phoresis, Y Lifting, Ultral Sound, Cryo
2. E-Trans system/Magic pot. 최첨단 리프팅기기 트리폴라 열에너지, 초강력 엔돌로마자 시스템, 부이 빔 블루 레드 칼라 테라피

503-957-3821

Shin's Wellbeing Food

shinwellbeingfoods.carrd.co
김치 Specialist

무설탕, NO MSG, 한국 고추가루사용

천연재료만으로 맛을 낸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김치 배달합니다.

206-887-3088(카톡주문 가능)

박스광고

\$80 / 4회

206-779-5382

페더럴웨이 경치좋은 레톤도 비취에 있는 1층 전체 렌트

화장실1, 방1, 거실
인터넷 설치 완비
금연자 환영. \$950/M.

213-819-2556

구인

H-mart Tacoma 구인
지원자격: 미국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

지원부서: Cachier, Grocery, Deli

근무조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점심 제공

(425) 312.4588

공항 Pick Up

공항 Pick Up 또는
라이더 필요하신분
어디든지 갑니다

253-337-7209

구인

한국어/영어 구사 가능한
리걸 어시스턴트 구함
401k 및 건강보험, PTO 제공
2년 이상 경력자 우대
이력서 보낼곳:
Justin@parkchenaur.com
(박쉬나 법률)

253-839-9440

무료상담

편안한 집에서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이민생활과
가정, 자녀, 신앙 등에
관한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253-503-9984

주유소 파트타임

(주 3~4일)
일하실 직원분 구합니다.
디모인스
(Sea Tac 근처)지역
(전화, 문자)

206-334-7532

한국식당 장비판매

바베큐 테이블 set 신제품 20개
(마블10개/ 체리10개),
냉면 육수 냉장고, 스시 케이스 5ft,
파저리 기계, 등..
한국바베큐식당에 필요한것
모두 있습니다.

253-754-5243

뷰티 서플라이 일하실 분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하실 분
경험자 우대
full or part time

253 228 4727 / 504 444 7453

룸 렌트

타코마 신신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실 캐슈어/세일즈/창고
직원 원합니다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이메일 : twin0418@aol.com

(253) 582.2975

렌트

벨링햄
방 한개만
사용할 학생
\$800/월

(253) 334.6078

차량 판매

2014년 형 렉서스 CT 200h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합니다.
원래 오너가 곱게 타던 무사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색깔은 빨간색

206.670.8654

박스광고

\$80 / 4회

206-779-5382

스페이스 리스

스노퀼미 마켓 Empty Space 렌트
스노퀼미역 바로 앞/스노퀼미
폭포 관광지에서 1마일 / 커피, 빵
스무디 등의 비즈니스에 적합
Set - Up 공사기간 3개월
FREE Rent, 1,895 Sqft
렌트비 : \$3,947+ NNN

(206) 496.7060

아파트 렌트

▶방1, 큰화장실1
유틸리티 \$150
렌트비\$1,500

▶방2, 화장실1
유틸리티\$150
렌트비\$1,500

▶방1, 화장실1
유틸리티 \$100
렌트비\$1,200

신축, 좋은 로케이션
(타코마 부한 바로 옆)

253-302-7095

방 렌트

씨택 공항 근처
렌트비: 750불(유틸리티 포함)
남학생, 직장 다니시는 분 환영.
금주, 금연 하시는 분 환영

206-679-9208

간병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청소/요리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라이드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항시 남/여
일할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253) 571.8080

로맨틱 소개팅 (결혼정보)

당신에게 맞는 짝이 있습니다
커플메니저가 좋은 만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253) 571.8080

병원 스페이스 렌트

L.Ac, DPT, LMT
Office space for Rent
815 sqft
(Including rooms, recreation
rooms, and bathrooms)

253-941-6779
Email:chachiropractic@gmail.com

박스광고 \$80/4회 206-779-5382

찬반 격돌 속 백만장자세 법제화... 위헌 소송 · 주민투표 동시 직면

- ▶ 퍼거슨 주지사, 3월 30일 올림피아서 SB 6346 서명... 연소득 \$100만 초과분에 9.9% 부과
- ▶ 2028년 시행, 연간 약 \$30억 세수 기대... 저소득층 세금 환급 확대에 활용
- ▶ 위헌 소송 · 주민 서명운동 동시 돌입... 법정 · 투표함 가릴 것 없이 격돌 예고

밥 퍼거슨(Bob Ferguson) 워싱턴 주지사 3월 30일 올림피아 주의사당에서 '백만장자세'(SB 6346)에 서명했다. 워싱턴주 역사상 최초의 소득세로, 1932년 이후 무려 94년 만에 이루어진 세제 대변혁이다. 그러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위헌 소송과 주민 서명운동이 동시에 불붙으며, 법은 이미 법정과 투표함이라는 두 개의 전쟁터로 향했다. ◆ 연봉 \$100만 초과분에 9.9% 적용... 2028년부터 시행 새 법은 가구 기준 연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9.9%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금은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첫 납부 시기는 2029년 4월이다. 과세 기준액은 2년마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조정된다. 주 세무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기준 약 2만 1,000가구가 납세 대상이며, 이는 워싱턴주 전체 주민의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납세자

의 3분의 1이 킹 카운티 41·45·48 입법구역에 집중돼 있어, 헌츠 포인트·메디나·머서 아일랜드·벨뷰·레드먼드·이사콰·새미미시 등 고소득층 밀집 지역이 직접 영향권에 든다. 연간 기대 세수는 약 \$30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저소득층 대상 '근로가족 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확대에 쓰인다. 공제 혜택을 받는 가구는 현재 35만 가구에서 81만 가구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퍼거슨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소득 하위 20% 가정은 주·지방세로 전체 소득의 13.8%를 부담하는 반면, 최고 부유층은 훨씬 적은 비율을 낸다"며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상원 다수당 대표 제이미 피더슨(Jamie Pedersen·민주당·시애틀)은 이번 법안을 "워싱턴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누진세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 하원 25시간 마라톤

토론 끝에 통과... 민주당 11명도 반대 표 SB 6346은 상원에서 27대 21, 하원에서 51대 46의 표결로 가결됐다. 하원 심의 과정에서 공화당은 약 80개의 수정안을 제출하며 약 25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으로 법안을 막으려 했지만 민주당 다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주목할 점은 공화당 전원 외에 민주당 의원 11명도 최종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이다. 반대 의원들은 위헌 소지와 기업 탈출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숄츠는 하원 표결 당일인 3월 10일 44년간 거주했던 시애틀을 떠나 플로리다로 이주했다고 밝혔으며, 스타벅스 본사도 내슈빌에 새 사무소를 여는 등 주요 기업들의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 위헌 소송 · 주민투표 두 갈래 반격... 법의 앞날은 불투명 법안 서명과 동시에 반격도 시작됐다. 전 워싱턴주 법무



워싱턴 주 제24대 주지사 밥 퍼거슨

장관 롭 맥케나(Rob McKenna)가 이끄는 시민행동방어기금(Citizen Action Defense Fund)은 수일 내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워싱턴주 헌법이 소득세를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누진 소득세는 균등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워싱턴 유권자들은 1932년 이후 소득세 도입 시도를 무려 11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보수 단체 '렛츠 고 워싱턴(Let's Go Washington)'도 법 폐

지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11월 투표에 올리려면 7월 2일까지 약 40만 명의 서명을 모아야 한다. 다만 법안에는 '긴급 조항(necessity clause)'이 포함돼 있어 주민투표 자체가 법적으로 가로막힐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퍼거슨 주지사는 "앞으로 이 법을 둘러싼 공론이 이어지겠지만 역사적인 변화에 맞는 과정"이라며 법의 합헌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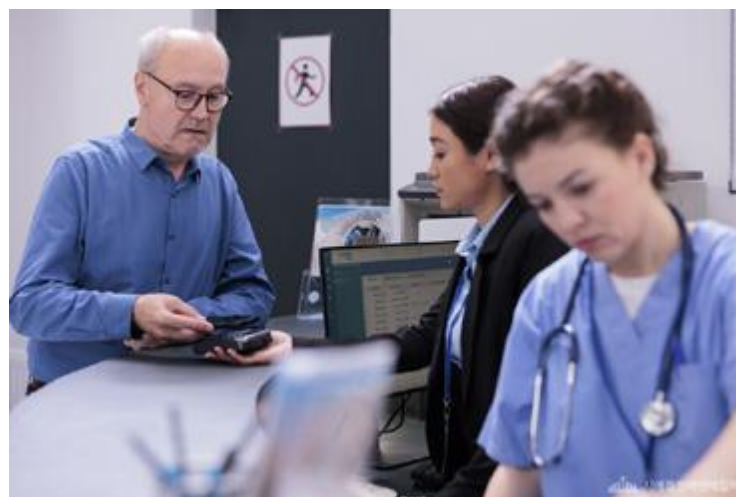
미국 노년층 300만 명 건강보험 날벼락... "치과 · 안과 혜택 사라지고 의료비 폭탄"

- ▶ 2026년 약 300만 명 강제 탈퇴...보험사 수익 악화에 플랜 철수 잇따라
- ▶ 농촌 지역 타격 가장 커...버몬트주 가입자의 92% 보험 잃어
- ▶ 전통 메디케어로 전환 시 치과 · 시력 혜택 상실, 추가 보험료 부담 이중고

미국의 노년층 수백만 명이 갑작스럽게 건강보험을 잃는 사태가 벌어지며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민간 보험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플랜을 철수하면서 고령층이 새 보험을 찾아야 하는 혼란에 빠진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31일(현지시간)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민간 보험 중심 구조가 확대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역대 최대 규모 강제 탈퇴...10년 만에 탈퇴율 10배 급등 학술지 AJMC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의 약 10%인 약 290만~300만 명이 가입 플랜이 중단되거나 대폭 변경되는 이른바 '강제 탈퇴'를 겪게 됐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강제 탈퇴율이 1%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10배로 뛰어오른 전례 없는 수치다. 2025년에도 6.9%로 급등한 바 있어 악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KFF) 분석에서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처방 약 플랜(MA-PD) 가입자의 약 13%인 260만 명이 2026년에 가입 플랜을 잃게 된다고 추산했다. 업계 대형사들도 대거 시장 철수 대열에 합류했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itedHealthcare)는 200개 이상의 카운티에서 플랜을 철수했고, 휴마나(Humana)도 비슷한 규모로 시장을 축소했다. 이미 120만 명이상의 가입자가 플랜 종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 농촌 지역이 가장 큰 타격...버몬트주는 가입자 92%가 보험 잃어 보험사 철수의 직격탄은 농촌 지역과 소규모 주에 집중됐다. 연구에 따르면 농촌 거주자가 강제 탈퇴자의 28%를 차지했으며, 이 중 보험을 유지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버몬트주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전국 평균 강제 탈퇴율이 10%인 상황에서 버몬트는 무려 92%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가 플랜을 잃었다. 주의 소규모 인구 구조와 농촌

중심의 지역 특성이 보험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낮은 시장으로 분류된 결과다. 뉴햄프셔, 와이오밍, 아이다호, 미네소타,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 등 7개 주에서도 2026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전체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 실제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뉴햄프셔에 거주하는 70세 노인 앤서니 페치키스는 심장마비, 당뇨, 통풍, 류마티즘 관절염 등 여러 질병을 안고 살아왔지만 기존 보험이 중단되면서 전통 메디케어로 전환해야 했다. 치과 · 시력 혜택을 잃은 데다, 추가 보충 보험(메디캡)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의료비의 20%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월 200달러 수준의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고령자도 나타나고 있다. ◆ 보험사엔 수익 악화, 가입자엔 혜택 축소...구조적 한계 드러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낮은 보험료에 치과 · 시력 · 피트니스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해 20여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해



[사진=신문사DB]

왔다. 2026년 현재 가입자 수는 역대 최대인 3,54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의료이용률 급증, 의료비 상승, 정부 보조금 증가율 둔화가 맞물리며 보험사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다. 메드팩(MedPAC)의 2026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지출되는 정부 비용은 전통 메디케어보다 14% 높으며, 그 차액이 760억 달러에 달한다. 보험 선택지가 줄면서 가입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전통 메디케어로 전환할 경우 치과 · 안과 혜택을 잃고, 메디캡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비 20%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반면 메디

캡 플랜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보다 월 보험료가 높아 고령층의 선택 폭이 좁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플랜이 종료됐을 경우 '특별 가입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과 '보장 발급권(Guaranteed Issue Right)'이 주어지므로, 각 주의 건강보험 상담 프로그램(SHIP)을 통해 빠르게 대안을 찾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민간 보험 중심으로 확장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며, 고령층 의료 접근성과 비용 부담 문제가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시애틀코리안데일리



haninsosik.com



2027년 서북미 통합업소록과 함께하세요! 통합한인업소록 리스팅 · 광고접수

업소록 광고를 신청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2 가지 혜택

1 전자신문에 무료 광고 게재

MS Media Group에서 워싱턴주 한인들에게 매주 전달하고 있는 전자신문에 무료로 광고를 게재해 드립니다.

2 웹사이트 광고비 50% 할인 혜택

MS Media Group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온라인신문에 광고하시는 분들께 광고비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광고문의 206.779.5382 / E-mail: ads@mhankook.com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

HMART
www.hmartus.com

7 DAYS SALE

APR 3RD - APR 9TH, 2026

일주일 LHL 매일할인
(야채부/정육부는 4일만 진행)



春 골라 담는 재미가 팡팡
간식 세일 중!

응진 과일음료
1.5L 4종
248 EA

HBAF 팝콘
80g 8종
128 EA

ROASTED CHESTNUT (SPECIAL VALLE EPACK)
MARRON RÔTI (VALLEUR SPECIALE EPACK)
660g 6pk
그린햇 군밤
698 EA

HOT DEALS

ONLY 4 days 금/토/일/월

아돌포 망고
1498 BOX

ONLY 4 days 금/토/일/월

돼지목살 샤브샤브
NATURAL PORK
598 LB

1.1LB

FULLY COOKED MUSSEL
POLARBIRD 자숙홍합
268 PK

290g

레몬랜드 계란장조림
478 PK

PRODUCE SALE 야채 ONLY 4 days 금/토/일/월

 타미망고 1098 BOX	 골드너켓만다린 2LBS 348 BAG	 영코코넛 248 EA	 2LBS 그린키위 628 PK	 오리만다린 298 LB	 아보카도 068 EA
 실란트로 2 FOR 100 EA	 150g 해물버섯 108 EA	 청경채 128 LB	 시금치 128 EA	 풀무원 순두부 128 EA	 고소한두부 부침/찌개/생식용 148 EA

MEAT DEALS 정육 ONLY 4 days 금/토/일/월

 탕갈비 898 LB	 국거리용 등심 498 LB	 말은 돼지갈비 448 LB	 생삼겹살 648 LB
-----------------------	---------------------------	---------------------------	------------------------

Available at HMART and GMART except the 2nd & Pine and UW Seattle store. Valid while supplies last. Quantities limited to stock on hand. Images may not be the same as shown. Copyright©H-MART corp. All Rights Reserved. 본 프로모션은 HMART와 GMART에서 적용되며, 2nd&Pine

GROCERY DEALS 식료품

 <p>15LBS (니이가타) 스시라이스 10⁹⁸ BAG</p>	 <p>700g (고래사) 꼬치어묵 & 물떡 9⁹⁸ EA</p>	 <p>568g~632g (키다리) 3종 휴게소우동 4⁹⁸ EA</p>	 <p>4pk, 5pk/80g, 100g (우양) 3종 핫도그 4⁹⁸ EA</p>	 <p>900g (초림동이) 옛날맛붕어빵 5⁹⁸ EA</p>	 <p>3pcs/22.2oz (초림동이) 알록이 찹옥수수 2⁹⁸ EA</p>
 <p>300g (한상) 강동시장 김치전/아채전 3⁴⁸ EA</p>	 <p>21.2oz (폴무원) 만두 2종 7⁹⁸ EA</p>	 <p>960g (호야) 로제짬뽕 9⁹⁸ EA</p>	 <p>6pk/77.1g, 78.6g (태경) 쌀국수 순한맛/매운맛 9⁹⁸ BOX</p>	 <p>4pk/130g (농심) 신라면블랙 6⁹⁸ EA</p>	 <p>5pk/4.9oz (삼성) 로제 불닭볶음면 5⁹⁸ EA</p>
 <p>16pk/4g (성경) 올리브 녹차김 4⁹⁸ EA</p>	 <p>80g (초림동이) 순미역 2⁹⁸ EA</p>	 <p>60g (대양) 구운 쥐포 구이채 2 FOR 5</p>	 <p>1LB (초림동이) 명란젓 13⁹⁸ EA</p>	 <p>1kg (그림햇) 동백하 새우젓 3⁹⁸ EA</p>	 <p>340g (초림동이) 갑오징어 4⁹⁸ EA</p>
 <p>1kg (오투기) 부침가루 2⁹⁸ EA</p>	 <p>900ml (롯데) 미림 3⁹⁸ EA</p>	 <p>2.2kg (태경) 떡볶이소스 9⁹⁸ EA</p>	 <p>310g (황찬) 왕만두피 1⁴⁸ EA</p>	 <p>75g, 85g (농심) 크림빵 단팥빵 1⁹⁸ EA</p>	 <p>6pk/85ml (롯데) 그릭 요거트바 2종 4⁹⁸ EA</p>
 <p>12k/30g (해태) 오예스 3⁹⁸ EA</p>	 <p>60g (해태) 허니버터칩 1⁷⁸ EA</p>	 <p>300g (해태) 맛동산파티 벌크 3⁴⁸ EA</p>	 <p>800g (황찬) 미드미 누룽지 6⁹⁸ EA</p>	 <p>25pk/63ml (매일) 바이오필 요구르트 3종 3⁴⁸ EA</p>	 <p>12pk/190ml (매일) 두유 3종 7⁹⁸ BOX</p>

SEAFOOD SALE 수산

 <p>(수협) 제주은빛갈치 7⁴⁸ PK</p>	 <p>(DAIFUKU) 종합어묵 6⁹⁸ PK</p>	 <p>(청해거상) 냉동전복 10⁹⁸ PK</p>	 <p>(SEATRUST) 절단코다리 7⁴⁸ PK</p>
--	--	--	--

DELI SPECIALS 반찬

 <p>120g (레몬랜드) 고구마맛탕 3⁹⁸ PK</p>	 <p>150g (레몬랜드) 땅콩조림 2⁹⁸ PK</p>	 <p>85g (레몬랜드) 황태겍질부각 5⁴⁸ PK</p>	 <p>220g (레몬랜드) 흑임자두릅떡 3⁹⁸ PK</p>
--	--	---	--

KITCHEN & HOME DEALS 생필품

 <p>22kg (상익) 쌀통 65⁷⁸ EA</p>	 <p>20cm (키친) 플라워한상 인덕션 카마솥 34⁴⁸ EA</p>	 <p>(랄리오) 스테인 식기세트 시나몬틀 13⁹⁸ EA</p>	 <p>15L (문일) M정사각 휴지통 대형 12⁴⁸ EA</p>
--	--	--	---

NEW ARRIVAL SUPER SALE

칠갑 냉천골 떡볶이/수제비

농심 6입고구마 스틱

sweet POTATO STICKS

칠갑산 냉천골 쌀로 수제비

칠갑산 냉천골 밀떡볶이

OPEN 365 DAYS 8AM - 9:30PM

MORE DEALS IN-STORE!
VISIT YOUR NEAREST LOCATION

Bellevue | Federal Way | Lynnwood | Redmond
Tacoma | Ballard | Lynnwood Gmart (8am-9pm)

ine과 UW Seattle 매장은 제외됩니다. 프로모션 제품은 조기 품절되거나,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광고물의 사용에 대한 법적 권한은 H MART에 있습니다.

* UW and Seattle (2nd & Pine) stores are excluded from the sale.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시애틀 No.1 한인 여행사

드림투어

206.200.3113

주소: 31434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정확한 진단, 빠른처리, 안전한 시공

OK Handyman

페인트 · 보일러 · 펜스
데크 · 각종 집수리 등

Cell 206.306.6700 | 206.779.5382
Email skgid7700@gmail.com

연금저축보험 / 대학자금 / 일반연금 / 양보험

조요셉 종합보험

자동차 사업체
주택 생명보험

문의 253.459.9800
개인별 맞춤설계 / 의사별 비교견적 / 신속상담

최고 실력, 최고 부품사용 개런티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비 서비스!

One Stop **Tony's**
그린우드 종합정비 그린우드 오토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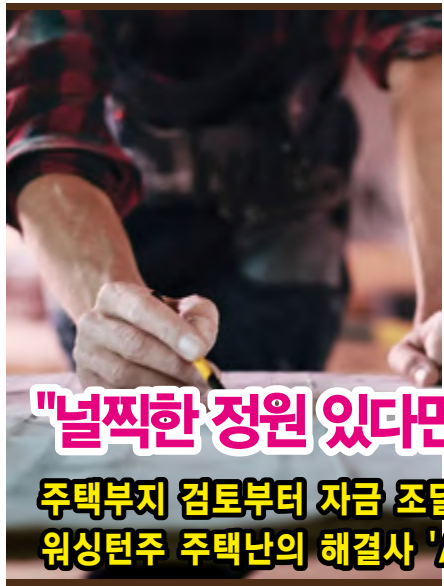
Tel. 206-706-2778
8208 Greenwood Ave N, Seattle, WA 98103

20년의 경력과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일하는

김연정 부동산

YON KIM Managing Broker
Best Choice REALTY

253.227.6673
yon@bestchoicerealtywa.com



《특별 기획-ADU》

"넌찍한 정원 있다면 5% 다운페이로 집 지어드려요~"

주택부지 검토부터 자금 조달, 시공까지...알라바스터, '원스탑 솔루션' 화제
워싱턴주 주택난의 해결사 'ADU', 무분별한 증축보다 정교한 '전략'이 우선

워싱턴주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존 주거 공간을 활용해 가치를 극대화하는 ADU(Accessory Dwelling Unit, 부속 거주 단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최근 워싱턴주 정부가 ADU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친화적 법규'를 확대함에 따라, 내 집 마당이나 남는 공간을 활용해 임대 수익을 창출하려는 주택 소유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에 알라바스터 컨트랙팅(Alabaster Contracting)은 파트너사인 Pacific Equity & Loan과 협력하여 자격 요건 충족 시 단 5%의 다운페이먼트로 공사비를 융자받을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주고 있어 화제다. ▲상담 및 문의: 206-512-0959(선착순 30명 무료 사진 검토) <미디어한국> <관련기사 Page-9>

"친절하고 성실한 메디케어 전문"

메디케어 상담전문 **이영이 보험**

206.407.8478
youngyi712@gmail.com

가정의학 / 소아과 / 부인과 / 노인과 / 내과 / 정신건강 / 응급치료 / 각종예방접종

채정희 클리닉

ADVANCED FAMILYCARE MEDICINE

모든보험 | 스킨케어
원격진료 (Virtual Care) 가능

"10여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친절하게 진료해드립니다."

☎ 253-314-5742 레이크우드 부한플라자 내에 위치

광고 문의 206.779.5382

패티임 보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준비, 노후계획 무료상담

253-632-8904
생명보험/은퇴플랜/401K 롤오버/메디케어
E-mail : girlpatti1@gmail.com

ANIMAL CLINIC OF BENSON

종합 동물병원

253.852.6330
10700 SE 208th St #204 Kent, WA 98031

2027년 통합업소록과 함께하세요

통합한인업소록

리스팅 · 광고접수

www.haninsosik.com
문의 : 206-779-5382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친절한

김양미 보험

메디케어전문

매년감 의료
통역경력 ☎ 206-679-8301
getcare8282@gmail.com

주방장 구함

Peking Garden Chinese Restaurant

북경가든

여기!

맞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짬뽕과 짜장면이 제일 맛있는 집

예약/주문
253.588.2399

타코마 팔도월드(Food Court) 9701 So. Tacoma Way #115 Lakewood, WA 98499



J&J

세무회계법인 로펌

" 커피 한 잔 값까지도 절세 "

작은 비용까지 챙기는 꼼꼼한 절세

" 회계사·변호사 동시 무료 상담 "

각종 서류·계약·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대비

" 사업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파트너 "

비즈니스 라이선스 · 각종 행정·법률(리뷰) 서류까지 · 비용 \$0

비즈니스 전문

절세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들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201 PACIFIC AVE 600, TACOMA, WA 98402
OFFICE: 253 400 7586 / 253 203 3137(8)

부동산의 모든 것, 구매와 매매의 전 과정을 시작에서 끝까지 완성합니다.

Built on Trust. Completed with Value.



Designate Broker
대표 책임 공인중개사

김수영

206.999.7989

sykbellevue@gmail.com

“이사철의 계절, 집 장만의 계절”

주택 ◆ 커머셜 (호텔, 모텔, 주유소, 투자성건물) ◆ 사업체 EB-5 (투자이민) ◆ E2 (소액투자) ◆ 부동산관리 ◆ 워싱턴주내 별장

Bainbridge Island 상가건물 & 61,855 sf. 상가건물건축 가능한(NSC)대지



\$1,890,000

- ▲ 건물 6,000sf · 대지 61,855sf(1,738평) ▲ Fully occupied, gross \$20 매우 낮은 월세 ▲ 동네 유일 성업중 그로서리 ▲ 주차 43대 가능 ▲ 20년 영업 유명 이태리언 식당 ▲ Upholstery 및 주차장 수입 포함 ▲ 현재 월 렌트 \$9,200 (곧 대폭 상승 예상) ▲ 요지 사거리 중심 Mixed Use Zone ▲ 상가·사무실·콘도·Storage 개발 가능 ▲ 유입인구 증가, 미래 투자성 높은 부동산 ▲ 우체국·법원·교회 인접 중심지

치킨 전문 식당



\$134,000

- ▲ 주인 은퇴 이유
- ▲ 수목금토 4일만 4시~12시까지 영업 중
- ▲ 매상 하루 \$1,000-\$1,200
- ▲ 월 순이익: \$10,000 이상
- ▲ 싼렌트: \$2,350 (모두 합하여서) 리스: 5-5
- ▲ 투 고 손님 많은 식당(1/3)
- ▲ 칸막이 방 3개, 테이블, 후드 설치되고, CCTV 설치, 쿨러, 새장비
- ▲ 주 6일 열고, 오전 11시 부터 영업하면 순이익 많이 오를 가능성 큼.



김수영 부동산 전속 협력회사 임원들과 함께

- 강력한 협력팀**
- 융자팀: 주택용자 비영주권자 용자 상업 용자 ● 스테이징 서비스
 - 전문 사진사 ● Property management 자매회사 ● 핸디맨/건축회사

김기호
253.651.3778
khkhelix@gmail.com

김수영
부동산
주택 | 커머셜 | 사업체

206.999.7989

Designated Broker
워싱턴주 부동산 경영인 협회 2018 회장
sykbellevue@gmail.com



워싱턴주 부동산 경영인 협회
WA Korean Designated Brokers Association

1085 103rd Ave NE Bellevue, WA 98004
최신 리스팅과 정보는 suyoungkim.com 에서 확인하세요

편안한 만남, 확실한 일처리 **SUN PARK REAL ESTATE**

박선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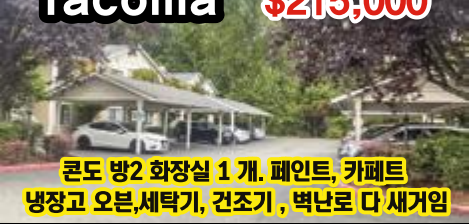




253.241.2307
sunpark93@gmail.com

Bellevue, New Castle, Renton, Federal Way, Auburn, Kent, Tacoma, UP, Puyallup - 아름다운 집을 소개해드리고 팔아드립니다.

Better Properties North Pacific
Sun Park
Real Estate Broker, GRI



스시 카운터 - 순수익 \$17,000 asking 8만 5 천. 스시를 경험자 절호의 기회

<p>Tacoma</p>  <p>\$559,950</p> <p>4 bd · 2 ba · 1,913 sqft</p>	<p>Tacoma</p>  <p>\$799,950</p> <p>4 bd · 2.5 ba · 2,502 sqft</p>	<p>Puyallup</p>  <p>\$512,450</p> <p>3 bd · 3.25 ba · 2,100 sqft</p>	<p>Fife</p>  <p>\$524,950</p> <p>3 bd · 2.5 ba · 1,806 sqft</p>	<p>Tacoma \$215,000</p>  <p>콘도 방2 화장실 1 개, 페인트, 카펫 냉장고 오븐,세탁기, 건조기, 벽난로 다 새거임</p> <p>3 bd · 2.5 ba · 1,806 sqft</p>
<p>Federal Way</p>  <p>\$865,000</p> <p>4 bd · 2.5 ba · 3,210 sqft</p>	<p>Tacoma</p>  <p>\$599,950</p> <p>4 bd · 2.25 ba · 1,916 sqft</p>	<p>Federal Way</p>  <p>\$991,990</p> <p>4 bd · 2.5 ba · 2,781 sqft</p>	<p>Tacoma</p>  <p>\$540,000</p> <p>4 bd · 2.25 ba · 2,023 sqft</p>	<p>“뷰티샵 비즈니스” “스시바” “음식만들기”</p> <p>관심있으신 분 연락주세요!</p>

맛있고 푸짐한 런치뷔페! 11 AM - 3 PM

정갈한 맛! 포장(Buffet-to-Go!) \$10.95/파운드

\$21.95
11am~3pm



채식·일반식, 수프, 샐러드, 디저트까지! 픽업 주문 시 무료 디저트 제공!
각종 모임과 오피스 파티 케이터링도 예약 가능! 시간을 절약하세요!

 블랙 타이거 새우	 킹 연어 필레	 버터 치킨
 생강 새우 코코넛	 양고기 커리	 망고 치킨 커리

Call: 253-529-9292

EAST INDIA GRILL

31845 Gateway Boulevard S. Federal Way (Gateway Center Plaza)
 ■ 영업시간 : 일~목 : 11AM ~ 9PM / 금,토 : 11AM ~ 10PM
 ■ 홈페이지 : www.eastindiagrillwa.com

BEST FEDERAL WAY 2024 **BEST FEDERAL WAY 2025** **DOORDASH** **Uber Eats**

뱅크오브호프, SMBC MANUBANK 상업은행 유닛 인수

전액 현금 거래 방식으로 인수하며 상업금융 경쟁력 강화에 나서 LA에서의 입지 확대하며 아시아 중견기업 공략 본격화 확대 주목

뱅크오브호프가 SMBC MANUBANK의 상업은행 유닛(Commercial Banking Unit · CBU)을 전액 현금 거래 방식으로 인수하며 상업금융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번 인수는 핵심 예금 기반 확대와 대출 포트폴리오 다각화, 로스앤젤레스 지역 영업력 강화, 그리고 일본계·한국계 기업 고객 공략 확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호프 뱅크(Hope Bancorp, Inc., NASDAQ: HOPE)은 3월 31일 뱅크오브호프가 SMBC Americas Holdings, Inc. 및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SMBC)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SMBC MANUBANK의 상업은행 유닛을 인수하기 위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미국 내 일본계 중견기업과 소매 고객을 대상으로 상업 및 개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파트너십 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거래는 뱅크오브호프가 그동안 추진해 온 상업은행 중심 성장 전략과 맞닿아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인수를 통해 미국 내 아시아계 자회사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와 상품 제공 범위를 넓히고, 핵심 예금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수 대상인 CBU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약 25억 달러 규모의 대출과 27억 달러 규모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가주 지역에서 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점은 로스앤젤레스 광역권에 집중돼 있어, 뱅크오브호프는 이번 거래를 통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도시권인 LA 지역 내 핵심 영업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CBU의 사업 구조도 뱅크오브호프와 상호 보완적이라는 평가다. 일본계 기업 금융, 중견·대기업 대상 산업금융,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금융, 상업용 부동산, SBA 대출, 신탁 및 유산관리 기반 특화 예금 등 다양한 사업 라인을 갖추고 있어, 기존 뱅크오브호프의 주요 사업과 결합할 경우 효율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SMBC MANUBANK의 일본계 기업금융 부문과 뱅크오브호프의 한국 자회사 금융 그룹이 결합될 경우, 아시아계 다국적 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거래의 핵심 포인트로 꼽힌다. 케빈 김 뱅크오브호프 행장은 “이번 거래는 주당순이익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상품 경쟁력과 인재, 전문성을 강화하는 거래”라며 “특히 한국계와 일본계를 중심으로 현대 미국을 구성하는 다양한 다문화 커뮤니티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본계 기업금융 부문의 편입은 당사의 한국계 자회사 금융 그룹을 보완하며, 미국 본토와 하와이를 포함한 전역에서 국경을 초월한 중견기업 금융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김 행장은 또 “이번 인수를 통해 대규모 핵심 예금과 매력적인 대출 사업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수익성 개선과 주당순이익 증대로 이어져 주주들에게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SMB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계 고객들의 개인 및 기업금융 수요도 더욱 충실히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MBC 아메리카 디비전 최고경영자(CEO) 히로후미 오츠카는 “뛰어난 고객 서비스와 고품질 금융 솔루션 제공으로 확고한 명성을 쌓아온 뱅크오브호프와 이번 계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경험 많고 탄탄한 팀을 갖춘 뱅크오브호프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고 고객들에게 안정성과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거래는 미주 지역에서 SMBC의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규모와 전문성,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한 도매 및 기관금융 사업에 집

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거래가 재무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호프 뱅크는 이번 인수가 2027년 기준 주당순이익(EPS)을 20%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거래 종결 시 약 4.5% 수준의 유형자본가치(TBV) 희석이 예상되지만 약 2년 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액 현금 거래 구조를 통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2027년 예상 유형자본이익률(ROTE)을 약 12%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금 측면에서도 CBU의 예금 포트폴리오는 무이자 요구불 예금 비중이 22%에 달하고 정기예금 비중은 3%에 불과해, 뱅크오브호프의 자금 조달 구조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신탁·상속 금융 등 특화 예금 부문 확대도 예금 기반의 질적 개선도 기대된다. 대차대조표 측면에서는 상업 및 상업용 부동산 분야를 중심으로 25억 달러의 대출과 27억 달러의 예금이 추가되며, 비만기성 예금 비중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은 이번 결합의 또 다른 강점으로 “관계 중심 금융, 신속한 서비스, 고

객과 지역사회에 대한 장기적 지원”이라는 양사의 공통된 기업 문화를 꼽았다. 이를 통해 기업금융, 운영, 고객 관계 관리 전반에서 경험 많은 인력들이 결집하게 되며, 보다 깊은 고객 관계와 확대된 역량, 신속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거래는 순자산 구매 방식의 전액 현금 거래로 진행되며, 인수 대상에는 CBU의 대출 포트폴리오와 예금이 포함된다. 호프 뱅크와 뱅크오브호프, SMBC Americas Holdings, Inc., SMBC MANUBANK 이사회는 모두 이번 거래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일반적인 규제 승인 및 마감 조건 충족을 전제로 2026년 하반기 중 거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호프 뱅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총자산 185억3천만 달러 규모의 지주회사로, 뱅크오브호프와 테리토리얼 세이빙스를 통해 미국 본토와 하와이에 걸쳐 다문화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를 본사로 두고 있으며, 상업대출·기업금융·소비자금융·SBA 대출·주택담보대출·재무관리·외환·금리파생상품·국제무역금융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미국 본토에서 45개, 하와이에서 29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다.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스포츠서울USA
Sports Seoul SEATTLE

WOMAN'S

MEDIA GROUP CORP.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

haninsosik.com

Open 7 days a Week



벨뷰에서 가성비 최고의 정통 Pho

한 장소에서 25년 경력!

베트남 주방장의 정통의 맛!

I LOVE PHO

Vietnamese cuisine & teriyaki

T. 425-401-6400



3900 Factoria Blvd SE, Suite C Bellevue, WA 98006 <벨뷰 남대문 식품 옆>

광역시애틀 한인회, 신임 회장에 서용환 전 한인회장 추대

지난 3월 24일 온미 식당서 열린 정기모임에서 참석자 만장일치로 선출 회원 간 우의 증진 물론, 한인사회의 화합 위한 다양한 활동 펼칠 예정

광역시애틀·워싱턴주 한인사회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해온 '광역시애틀 한인회'가 신임 회장에 서용환 전 제42대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장을 추대했다. 한인회는 지난 3월 24일 오후 2시 지역 온미 식당에서 열린 정기모임에서 참석자 만장일치로 서용환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은 회원 간 친목을 다지는 동시에 향후 단체 운영 방향과 역할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용환 회장은 앞으로 2년간 한인회를 이끌며 회원 간 우의 증진은 물론, 지역 한인사회 화합과 단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인회 측은 오랜 경험과 지역사회 신망을 두루 갖춘 인물인 만큼, 단체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용환은 제42대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장과 서북미한인회연합회 이사장,

한인의날 축제재단 대회장 등을 역임하며 워싱턴주 한인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다. 특히 재임 시절 호도관광을 목적으로 한 모국 방문을 추진하고, 한인회관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남기며 지역사회 안팎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다. 또한 북미주 한인기독교실업인협회(CBMC) 시애틀 지회장과 서북부 연합회장을 맡아 한인 실업인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꾸준히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이력은 한인회가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지역 원로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으는 중심점 역할을 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기모임에는 박태호, 김준배, 오준걸, 곽종세, 강희열, 유철웅, 민학균, 홍승주, 강석동, 이수잔, 홍윤선, 유영숙, 서용환, 조기승 전 회장과 김원준

현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배우자들도 함께 자리해 친목을 다지고 서용환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한인회가 앞으로도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시애틀-워싱턴주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변화하는 한인사회 환경 속에서 경험 많은 원로들의 조언과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인회는 앞으로도 친목 도모와 더불어 워싱턴주 한인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동포사회의 격려와 응원을 바탕으로, 워싱턴주 한인사회의 '만행 단체'로서 필요할 때는 건설적인 조언과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미디어한국)



서용환 신임회장(앞줄 왼쪽에서 4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신문

미디어한국 스포츠서울USA 우먼즈

미디어한국 발행인 박재영
편집인 박재영
전화 206.779.5382 31411 6th Ave S
mediahankookweekly@gmail.com Federal Way, WA 98003

스포츠서울USA
Sports Seoul SEATTLE
오리건 타임스
The Oregon Times

Media Hankook is published by MS Media Group, Corp. 33110 Pacific Hwy S. #8 Federal Way, WA 98003, on every Friday. Subscription rate and the monthly delivery rate in most areas are \$15/month for minimum 4-day services per on month.

미디어한국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구독료 150달러를 체크나 머니오더, 또는 Periodical Postage Paid at Federal Way and
크레딧카드로 신청하시면 매주 정기적으로 additional mailing offices.
우송하여 드립니다.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Media Hankook is published weekly for \$150 MS Media Group Corp. 31411 6th Ave S
per year by MS Media Group Corp. 31411 Federal Way, WA 98003

광역시애틀한인회

GREATER SEATTLE KOREAN ASSOCIATION

신뢰받는 메신저,
소상공인을 위한 알림이 시애틀한인회

Small Business Resiliency Network

Supported by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ommerce

워싱턴주 상무부 소상공업반등네트워크
(Small Business Resiliency Network)의 파트너

“코비드로 인해 타격받은 워싱턴주 소상공업의 회복과 번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공정하게 지원합니다. 특별히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어 온 듯한 사각지대에 계신 동포 소상공업체에게 현사업 운영에 관련된 간단한 번역, 조언과 기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연계 기관과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 206-669-2578



오스카양 변호사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첫 상담을 통해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좀 더 쉽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민사소송 및 계약
- 비즈니스 법 (고용이슈 포함)
- 부동산 법
- 상속/자산 관련 법

SPECIAL OFFER
광고 보신분에 한하여
오피스 상담시 첫 상담은 특별가로 해드립니다
전화 상담시 선불 30% Discount해드립니다

Q. 부동산 또는 사업 거래, 협상, 및 계약서 형성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A. 저희는 고객들의 이런 갈등 등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갈등이 누구의 잘못이고 소송 여부에 더 쉽게 결정 하 실 수 있도록 첫 상담을 잡으세요.

Q. 직원으로써, 아님 고용주로서 고용 분쟁 이 있으신 가요?

A. 저희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해결토록 진심으로 노력하고, 이미 커졌으면 당신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싸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세요.

Q. 채무자에게서 돈을 못 받거나 채권자가 제대로 채무자의 권한을 존중 안해주나요?

A. 다양한 케이스들을 통해 채무자들이나 채권자들을 대변해오고 있습니다. 첫 상담을 하는 많은 분들이 그 전에 몰랐던 점들과 잘 못 아시고 계신 점들을 알게 되고, 그 잘못 아시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몇 십만불까지도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방문해주세요.

가정법

-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무분쟁 이혼
- 이의 제기된 이혼 분쟁/소송
- 가족 비즈니스 및 다른 자산 분할
- 양육권 및 양육비/배우자 생활 보조비



변호사 사무실
206) 979-7081 (한글 사무직원)
360) 218-7273 (오피스)
team3@esberrylaw.com

Factoria 13555 SE 36th St STE 100 Bellevue, WA 98006
Downtown 1400 112th Ave SE STE 100 Bellevue, WA 98004

다트머스 BA
프랑스 소재 인시아드 경영대 MBA
하버드 정치 행정대 MPP
코넬 법대 JD



바이어 고객님들

광고 이외에도 알짜 매물이 많습니다.

North 테리아끼 20만불

- ▶ SBA 융자가능
 - ▶ 5만불이하로 다운하고 사장님이 되어보세요
 - ▶ 일매상 1,500불로 안정적 운영
 - ▶ 교통편리하고 시내중심
 - ▶ 단골상대 장사하면 매출증진가능
- 좋은 동네라서 추천해드립니다.

South 햄버거가게

- ▶ 손쉬운 운영 가능

셀러 고객님들

합리적인 수수료와 최고 가격으로 팔아드립니다.

East 테리아끼 10만불

- ▶ 오너캐리 가능
- ▶ 부부가 직접 하면 안성맞춤

맞춤상담 받아보세요!

엠마 부동산

좋은 매물이 항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고객님께 맞춤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mma Park 206-688-0780 | Emmapark0780@gmail.com

〈특별 기획-ADU〉

"널찍한 정원 있다면 5% 다운페이로 집 지어드려요~"

주택부지 검토부터 자금 조달, 시공까지...알라바스터, '원스탑 솔루션' 화제 워싱턴주 주택난의 해결사 'ADU', 무분별한 증축보다 정교한 '전략'이 우선

워싱턴주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존 주거 공간을 활용해 가치를 극대화하는 ADU(Accessory Dwelling Unit, 부속 거주 단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최근 워싱턴주 정부가 ADU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친화적 법규'를 확대함에 따라, 내 집 마당이나 남는 공간을 활용해 임대 수익을 창출하려는 주택 소유주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증축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주택의 구조와 zoning, 그리고 공사비 대비 수익률(ROI)을 정교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고 한정된 인적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 신청자 선착순 30명에 한해서만 무료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0명 이후 신청분부터는 전문 인력의 분석료가 포함된 유료 서비스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주 주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및 신청]

▲신축(New Construction) 프로젝트 상담 안내: 기존 주택의 증축뿐만 아니라, 빈 부지에 새로운 꿈을 짓는 신축 프로젝트 또한 Alabaster Contracting의 전문 분야입니다. 신축은 초기 설계부터 토목 공사, 인허가 과정이 더욱 정교해야 하므로 반드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파트너와 시작해야 합니다. ADU를 넘어 단독 주택 신축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진행 중이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대상: 워싱턴주 내 주택 소유주 및 토지투자자

▲무료 사전 검토: 선착순 30명
▲상담 및 문의: 206-512-0959(영어상담), 206-206-3545(한국어상담)
▲이메일: contact@alabaster.llc
▲홈페이지: www.alabaster.llc

(미디어한국)

본지는 워싱턴주 ADU 시장의 선두주자인 알라바스터 컨트랙팅(Alabaster Contracting)과 함께 성공적인 ADU 투자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심층 분석했다.

- 증축, '경험'이 성패 가른다...zoning 검토는 필수

ADU는 형태가 다양하다. 마당에 별채를 짓는 Backyard Cottage(DADU)부터, 차고 위 증축, 지하실 및 다락방 개조, 그리고 기존 건물에 덧붙이는 Addition 방식까지 주택 상황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Alabaster Contracting의 관계자는

"부지가 ADU 건축이 가능한지, 관련 zoning 및 복잡한 규정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라며, "단순히 공간이 있다고 시작할 게 아니라 전문적인 '부지 적합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내 돈' 적게 들고 '가치'는 높이는 금융 전략

많은 이들이 ADU를 망설이는 이유는 초기 비용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략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Alabaster Contracting은 파트너사인 Pacific Equity & Loan과 협력하여 자격 요건 충족 시 단 5%의 다운페이먼트로 공사비를 융자받을 수 있는 구

조를 설계해준다. 주목할 점은 이른바 '1석 2조'의 투자 효과다. 융자를 통해 증축을 진행하더라도, 완공 후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용자 월 상환액을 상회하거나, 증축으로 인한 전체 자산 가치 상승분이 공사비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공사 비율과 기대 수익을 치밀하게 계산한다면,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리턴(Return)'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스탑'으로 시간·비용 절감

개인이 직접 허가부터 설계, 시공업체 선정, 용자 상담까지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Alabaster

Contracting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탑 ADU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Step 1: zoning 및 부지 적합성 정밀 검토 Step 2: 자금 조달 구조 설계(5% 다운 옵션 포함) Step 3: 전체 진행 과정 및 리소스 단계별 안내

ADU 건축은 단순한 시공이 아니라 도시 계획법, 건축 규제, 금융 공학이 결합된 고도의 전문 작업입니다. Alabaster Contracting은 개별 부지에 대한 정밀 분석을 위해 숙련된 전문 인력이 직접 현장 및 법규 조사를 수행하며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컨설팅 퀄리티를 유

시애틀 지역, "ICE 구금시설 못짓는다"

시애틀 지역, "ICE 구금시설 못짓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이민자 구금 및 추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애틀을 포함한 워싱턴주 여러 지방정부가 신규 이민자 구금시설 건설 및 기존 시설 확장을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도입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31일 전했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주에는 타코마에 위치한 서북미 ICE 구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설은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민간 교정기업 GEO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약 1,57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미국 내에서도 비교적 큰 이민자 구금 시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연방정부가 발표한 사전 입찰 공고에 따르면 시애틀 지역 내 최대 1,63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금시설 관련 계약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시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일부 이민자 인권 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이는 기존 타코마 시설의 확장 또는 추가 구금시설 확보 시도일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렌튼, 캔트, 시택, 턱윌라, 시애틀, 킹카운티, 피어스카운티 등 여러 지방정부는 신규 구금시설 건설이나 기존 시설 확장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모라토리엄(유예 조치)을 통과시켰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관련 개발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약 450억 달러 규모의 구금시설 확대 계획이 향후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부 계획 문서에 따르면 ICE는 향후 자체 소유 시설 확대를 목표로 창고 등 기존 건물을 구금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타코마 시설의 경우 과거 의료 서비스 부족, 위생 문제, 과도한 물리적 사용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수감자들은 폭행 및 부당 대우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시애틀 지역에 신규 대형 구금시설이 건설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연방정부가 기존 시설을 직접 매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정부가 시설을 직접 소유할 경우 지방정부의 규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인들과



타코마에 위치한 서북미 ICE 구치소

시민단체들은 향후 연방정부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며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금시설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 강화, 공공 압박 등 다양한 전략이 논의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정책 방향과 계약 체결 여부가 지역사회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이시애틀뉴스>

새소망교회, 새로운 도약 나선다

4월 첫 주부터 주일예배 '오전 11시'에...오후 2시에는 찬양과 간증 중심 열린 예배로 손현주 목사, "교회는 담장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회 문은 항상 열려있어야"



새로운 교회 간판.



페더럴웨이 새소망교회 외부/내부 모습.



존스 홉킨스 병원 원목(병원 목사) 출신 손현주 목사가 이끄는 새소망교회가 창립 1년 만에 지역 한인사회 안에서 따뜻한 신앙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특히 교회는 4월 첫 주부터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고, 오후 2시에는 찬

양과 간증 중심의 열린 예배를 이어가며 보다 폭넓은 지역사회 사역에 나선다.

새소망교회는 1년 전 단 4명의 예배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10배가 넘는 공동체로 성장했다. 단기간의 외형적 성장도 눈에 띄지만, 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숫자보다 '삶과 신앙이 만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다. 손현주 목사는 신앙이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의 현실과 아픔, 외로움, 회복의 자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교회를 이끌고 있다.

손 목사는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꼽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하며, 질병과 죽음, 상실과 회복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아 온 인물이다. 이후 결혼과 함께 시애틀로 이주한 뒤에는 곧바로 목회에 뛰어들기보다 다양한 사업 현장과 이민 생활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 삶의 무게를 몸소 경험했다. 이 과정은 오늘날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품는 목회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교회는 현재 세 개의 독립된 건물을 갖추고 있다. 예배당은 경건한 예배와 영적 회복의 공간으로, 친교실은 식사와 교제를 통해 정을 나누는 장소로, 문화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새소망교회는 이 공간들을 단지 교인들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지역 한인사회 전체를 위한 '사랑방'으로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손현주 목사는 "교회는 담장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혹은 이민 생활 속에서 힘과 위로, 만남과 회복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 문은 늘 열려 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진짜 복음을 나누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든지 오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조정된 예배 시간은 새소망교회의 방향성을 보다 분명히 보여준다. 교회는 4월 첫째 주부터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본예배로 드리며, 기존과 같이 오후 2시 예배도 계속 이어간다. 다만 오후 2시 예배는 기존의 일반 예배 형식에서 더 나아가,

찬양과 간증을 중심으로 한 '주일 오후 간증 찬양 예배'로 운영된다.

새소망교회 측은 이 예배가 단순한 내부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앙의 갈급함을 느끼는 이들을 위한 열린 회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회에 따르면 오후 예배는 교단과 교과를 초월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찬양과 간증,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적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교회 관계자는 "요즘 많은 분들이 길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위로와 회복,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갈망하고 있다"며 "오후 2시 예배는 그런 심령들을 위한 자리로, 본 교회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석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소망교회는 예배 외에도 지역사회와 연결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교회 공간은 경조사, 모임, 상담, 교육, 만남 등 지역사회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앙 공동체이자 지역사회 플랫폼'이라는 이중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손 목사는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열 수 없기 때문에, 오래 곁을 지키며 함께 울고 웃는 교회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삶에 지친 분들,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 진심 어린 위로와 힘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소망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소망교회는 창립 1주년을 지나며 이제 단순한 '새 교회'가 아니라, 한인 이민사회 속에서 영적 쉼터와 공동체적 회복의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히 이번 11시 예배와 오후 2시 찬양·간증 예배의 정착 여부는, 향후 교회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더 깊이 연결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회 안내]

▲담임목사: 손현주

▲주소: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예배와 모임 그리고 공간사용 문의: 253)508-8902

[음악으로 맺어지는 우리 동네 행복한 인연]

안녕하세요, 페더럴웨이 이웃 여러분!
음악을 사랑하고 사람 만나는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악기와 음악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고, 우리 삶을 더 신나고 활기차게 만들어 보고자 모임을 시작합니다.
"혼자 연주하면 소리이지만, 함께 연주하면 가슴 울리는 감동이 됩니다. 잊고 지냈던 여러분의 열정을 깨우

고, 이웃과 함께 웃으며 연주하는 기쁨을 누리보세요!"
▲ 이런 분들을 기다립니다!
실력자부터 초보까지: 악기 경험이 있는 분도, 새로 배우고 싶은 분도 모두 환영합니다.
모든 악기 가능: 기타, 색소폰, 피아노, 하모니카 등 소리 나는 악기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 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모임 장소: 새소망교회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우리 함께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 볼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 문의 및 신청: 253)508-8902
새소망교회와 문화원 운영팀 일동



허만 법률 그룹

3대를 이어온 변호사 가문

창립자 Karl Herrmann(1915-1997) : 전 상원의원 및 보험위원



“고객 한분 한분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교통사고 전문 허만 법률 그룹

사고로 다치셨습니까?
저희가 곁에 있습니다

창립70년이 넘게, 저희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뛰어난 실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변론해 왔습니다.
고객을 위한 것이라면 작은 일도 크게 보는 변호사
오늘도 고객만을 생각하는 변호사 찰스허만이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시애틀 · 타코마

페이지 리 (Paige K. Lee)

Cell: 206.773.8180
Direct: 206.492.7722
Fax: 206.492.7723
E-mail: paige@hlg.lawyer

교통사고

- 각종 상해사고/ 목허리부상
- 부당한 죽음/ 보행자 사고
- 뇌손상 사고/ 낙상사고
- 오토바이 사고/ 비행기 사고
- 제조물로 인한 상해



시애틀 · 타코마

줄리 황 (Julie Hwang)

Cell: 206.409.4611
Direct: 206.457.4200
Fax: 206.457.4201
E-mail: julie@hlg.lawyer

www.hlg.lawyer

시애틀 사무실
505 5th Ave. S, Suite 330 Seattle, WA 98104
T_206-625-9104
F_206-682-6710

타코마 사무실
1535 Tacoma Ave. S. Tacoma, WA 98402
T_253-627-8142
F_253-627-1835

출생 시민권 제한 논란, 대법원 심리 앞두고 긴장 고조

지난 2025년 1월 20일 서명된 행정명령, 헌법 14조 해석 놓고 충돌 법정 공방 본격화 부모가 불법 또는 임시 체류 신분일 경우 자동 시민권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포함

미국에서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이민자 사회 전반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까지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시민권 제도의 근간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시도를 둘러싼 '트럼프 대 바버라(Trump v. Barbara)' 사건에 대해 오는 4월 1일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이어지는 정기 심리 일정에 포함된 주요 사건 중 하나로, 같은 기간 선거법 관련 사건인 '왓슨 대 공화당전국위원회(Watson v.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도 함께 다뤄진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행정명령은 2025년 1월 20일 서명된 것으로,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임시 체류 신분일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명령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 위헌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이 조치가 헌법 수정 제14조에 명시된 출생 시민권 조항과 기존 연방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

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안은 헌법 해석을 둘러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이민 정책을 넘어 이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지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언론인 겸 시민권 운동가 헬렌 지아는 "출생 시민권 제한은 미래뿐 아니라 과거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이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이민자 사회 전반에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디아스포라(재외동포) 커뮤니티가 미국 정치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플로리다국제대 에두아르도 가마라 교수는 쿠바계와 베네수엘라계 미국인을 사례로 들며 "이민 정책의 수혜자였던 집단이 강경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모순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베네수엘라계 미국인 사회에서는 시민권자와 임시보호신분(TPS)을 가진 가족을 둔 이들 간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일부 시민권자들은 강경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가족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자 정치적 입장을 재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란계 미국인 사회 역시 모국의 정치 상황과 연계된 정치적 선택을 보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디아스포라가 미국의 외교 및 국내 정책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직접 감당해야 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심리는 출생 시민권의 범위와 헌법 해석을 둘러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결과에 따라 시민권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민자 사회뿐 아니라 미국 정치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디어한국)

메디케어 보험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 가입
플랜에 따라 혜택도 다릅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가장 좋은
플랜으로 선택하세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으세요'

플랜변경 기간입니다

성실하고 친절한 에이전트들에게서
무료로 자세한 서비스를 받으세요



단계. 1

일반 메디케어에
가입하십시오.

일반 메디케어 (연방 정부에서 제공)



병원 입원 및 입원 진료 비용
지불에 도움



의사 방문 및 외래 진료 비용
지불에 도움

선택사항 1

또는

선택사항 2

일반 메디케어에 다음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추가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하십시오.

메디케어 보조 보험 플랜 (민간 회사에서 제공)

일반 메디케어에 수반되는
회원 지출액 일부에 대한
비용 지불에 도움을 줍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민간 회사에서 제공)



파트 A (병원보험) 및
파트 B (의료보험)를
하나의 플랜에서 통합합니다.



보통 처방약 혜택이 포함됩니다.

일반 메디케어가 제공하지 않는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계. 3

저희에게
말겨 주시면
됩니다.

단계. 2

귀하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한지 결정하십시오.
추가 혜택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
무엇이든 대답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연 종합보험
Federal Way
253-228-5295
Tacoma
253-335-3895
jpinsurance.us@gmail.com
JP INSURANCE

온정숙 종합보험
Cell
253-353-9730
Office
253-503-6441
jungvaughn62@comcast.net
VAUGHN Insurance Services, LLC

패티임 보험
Cell
253-632-8904
Office
253-335-3895
girlpatti1@gmail.net

**이백희
메디케어 전문보험**
Cell
253-228-7006
bkins.medicare@gmail.com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힘내세요! 함께 이겨내요! 😊

올 부동산 (구) 태양 since 2002 Year (RealtyAll.com)



주택/아파트/상가/모텔/호텔/주유소/그로서리/식당/세탁소/각종 사업체/땅/부동산 건물 관리
고객 여러분의 귀중한 자산을 늘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6.228.4989
도병호 대표 Broker
Brian Do
briando@realtyall.com



253-205-5553
도은영 Monica Kim
eunyoung@gmail.com



김 원현	206-370-2382	이 은영	206-377-9192	HANNA LEE	253-365-8324	KIM, JONG G	206-852-9855
이 순열	253-335-1965	이 덕기	206-229-7407	이종성	509-863-6212	KIM, MYUNG JOON	206-228-4989
제니퍼 오	206-228-0591	KIM, ARTHUR J	206-859-9988	김용규	206-335-8949	KIM, LOUIS	253-722-3067
이 내권	206-793-0822	KIM, VERONICA	206-436-4989	부진실	253-905-2772	TERRY CHOI	213-220-7220
이 영철	253-777-6714	황 인성	206-306-4336	김강식	206-949-6197	www.realtyall.com 에서 리스팅을 확인!	
정 정이	206-200-1444	엠마 박	206-688-0780	ROBERT KIM	253-576-3939		

▶ **올부동산과 함께할 에이전트(Broker)를 모집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김원현 부동산



김원현 Won Kim
206.370.2382
wonkim1974@hotmail.com

Veronica Kim / 206-235-5353
베로니카 김 / veronicavk0101@gmail.com

비즈니스 파실분/사실분 연락주세요

테리야기 / 음식점

- 1. 테리야끼 \$550,000 일매상: \$4,000
- 2. 테리야끼 \$530,000 일매상: \$3,500
- 3. 테리야끼 \$230,000 일매상: \$1,700
- 4. 테리야끼 \$280,000 일매상: \$2,300
- 5. 테리야끼 \$180,000 일매상: \$2,000
- 6. 테리야끼&Sushi \$50,000 일매상: \$1,000 (Owner Carry 가능)
- 7. 테리야끼 \$830,000 일매상: \$2,200 (부동산포함)
- 8. 일본식당 \$880,000 일매상: \$2,400 (부동산포함)

Grocery

- 1. \$105,000 월매상: \$55,000
- 2. \$280,000 월매상: \$65,000
- 3. \$300,000 월매상: \$80,000
- 4. \$590,000 월매상: \$95,000
- 5. \$600,000 월매상: \$110,000
- 6. \$100,000 월매상: \$45,000 (Owner Carry 가능)

Motel

\$1,750,000 Year Income: \$450,000 (Room: 29)

상가건물

\$2,900,000 CAP: 6%



WA Society of Korean CPAs
워싱턴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돕는

이동은 공인회계사
Diane Lee, CPA

☎ 425-678-0521
✉ dianelee CPA@hotmail.com
🏠 www.dianelee CPA.com
18514 Highway 99 Ste E,
Lynnwood, WA 98037

SKJ & Company, P.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고객의 확실한 길잡이

정세계 공인회계사
Seke Jung, CPA

☎ 206-367-6782
✉ info@skjcpa.com
🏠 www.skjcpa.com
19909 Ballinger Way NE Ste 100,
Shoreline, WA 98155

SHK GROUP PLLC
CPA & BUSINESS ADVISORS

Trusted Tax & Accounting

김성훈 공인회계사
Seong Hoon Kim, CPA

☎ 425-869-3670
✉ info@shkgroup.com
🏠 www.shkgroup.com
9 Lake Bellevue Dr, Ste 216, Bellevue, WA 98005 (Bellevue Office)
34400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Federal Way Office)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감사는 확실하게, 공금증은 시원하게

김윤중 공인회계사
Arnie Kim, CPA

☎ 253-984-9530
✉ arnie@kkcpa.us
🏠 www.kimnkimcpa.com
9602 S. Tacoma Way, Ste B
Lakewood, WA 98499 (Tacoma Office)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감사는 확실하게, 공금증은 시원하게

김흥중 공인회계사
Dennis Kim, CPA

☎ 425-640-3435
✉ dennis@kkcpa.us
🏠 www.kimnkimcpa.com
23416 Hwy 99, Ste B
Edmonds, WA 98026 (Edmonds Office)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감사는 확실하게, 공금증은 시원하게

김덕중 공인회계사
James Kim, CPA

☎ 425-223-5577
✉ james@kkcpa.us
🏠 www.kimnkimcpa.com
11542 NE 21st Street
Bellevue, WA 98004 (Bellevue Office)

PH CPA, PLLC
ACCOUNTING & TAX SERVICES

황바로 공인회계사
Paul Hwang, CPA

☎ 425-742-7675
FAX : 425-650-2972
✉ info@phcpaplpc.com
4629 168th St SW Ste H
Lynnwood, WA 98037

Sora Son CPA, LLC.

손소라 공인회계사
Sora Son, CPA

☎ 425-361-7942
✉ sora@soncpa.net
19105 36th Ave W Ste 209,
Lynnwood WA 98036

ALISA NA
CPA

명확한 맞춤회계

나은숙 공인회계사
Alisa Na, CPA

☎ 425-744-2742
✉ Service@alisanacpa.com
🏠 alisanacpa.com
8319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투명한 관리, 확실한 신뢰로 비즈니스의 내일을 함께 그려드립니다.

김호순 공인회계사
Danielle H.S. Kim, CPA

☎ 253-839-9301
✉ dkimcpa1@hotmail.com
🏠 www.daniellekimcpa.com
28815 Pacific Highway S. Ste 8,
Federal Way, WA 98003

ASPEN
FINANCIAL & TAX SERVICES

Your trusted CPA for personal and business finances

사브리나향 공인회계사
Sabrina Hwang, CPA

☎ 425-373-0380
✉ sabrinahwang@cpa.com
🏠 www.aspenfinancialtax.com
14205 SE 36th St., Suite 100,
Bellevue, WA 98006

저희 WSKCPA
(회장 정세계 / 총무 김호순)에서는 정기세미나와 미주총회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회계사님께서는 저희 협회(info@wskcpa.org)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SKCPA
WA Society of Korean CPAs
워싱턴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사우스시애틀칼리지, 김치 활용 한식 경연 · 팝업 행사 개최

오는 4월 21일(화) 오전 11시 30분 한미 교육 교류 확대 맞춰 진행 김치 제조 HACCP 교육 및 한국 음식문화 알리기 위한 취지로 기획

사우스시애틀칼리지(South Seattle College)가 한미 교육기관 간 교류 확대와 'Study in Korea College Fair' 흐름에 맞춰 김치를 활용한 한식 밥상 경연대회와 팝업 행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김치 제조 공정과 관련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 음식문화의 우수성과 대중화를 알리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식이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교육과 산업, 식품 안전 관리가 결합된 실질적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김치를 중심으로 한 한국 음식문화가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어떻게 교육 콘텐츠와 대중적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행사에는 시애틀 총영사와 한인 커뮤니티

주요 인사, 동포 언론 등이 초청될 예정이다. 방문 일정은 오는 4월 21일(화)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학생들이 준비한 김치 기반 한식 밥상을 시식하고 기념 촬영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행사는 먼저 방문객들이 캠퍼스 주차장에 도착한 뒤 셰프 문쿠(Chef Moonku)의 안내를 받아 컬리너리 아트 빌딩(Culinary Arts Building)으로 이동하는 일정으로 시작된다. 이어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한식 밥상을 함께 시식하며 행사 취지를 공유하고, 단체 기념 촬영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브로키 스투던트센터(Brockey Student Center) 내 행사 가능 공간을 둘러보고, 로버트 스미스 빌딩(Robert Smith Building)에 위치한 총장실로 이동해 사우스시애틀칼리지 총장인 모니카 브라운(Dr. Monica Brown) 박사와

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한미 교육 교류와 한국 관련 프로그램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문단은 이어 노스웨스트 와인 아카데미(Northwest Wine Academy)로 이동해 교내 와인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관련 시설도 둘러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우스시애틀칼리지가 운영 중인 실습 중심 교육 프로그램 전반을 소개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 교류 가능성도 함께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한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김치를 비롯한 한국 음식문화가 교육 현장에서 전문성과 대중성을 함께 갖춘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J-1 · H2B · EB3

취업스폰서를 모십니다

★ 한국에서 미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고, 현재 사업체 운영에 믿고 신뢰할 직원을 원하십니까? 수시로 직원 부족으로 고용주가 대신 일해야 하는 고민을 글로벌 인재 양성 리쿠르먼트 회사 **Entryusa.co** 에서 해결해드립니다.

▶ **자격기준:** 현 사업체가 워싱턴주에 정식 등록되어 있고, 2년 이상 세금 보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사업체 종류:** 호텔, 식당, 그로서리, 스모크 샵, 세탁소, 유통 회사, 전기 및 전화 회사, 델리 및 제과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미용 및 네일, 스킨케어, 회계사무직, 법률사무직, 요가, 필라테스 강사 등

연락은 먼저 이메일로 해주세요. ▲Email: mynwcf23@gmail.com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을 받은 후 직접 고용주와 대화를 통해서 상의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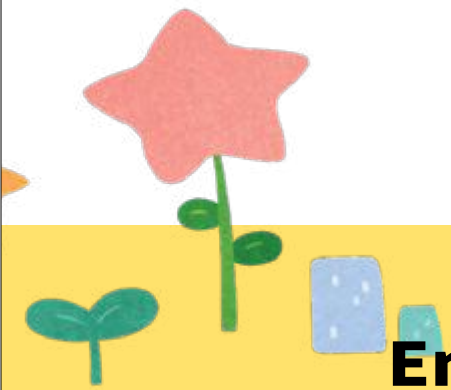
워싱턴주 유일의

한국어 방송

라디오한국이 달라져요!

27주년을 맞은 라디오한국이
뉴스, 정보, 음악중심으로
편성표를 대폭 개편합니다!

KSUH 1450 AM
KWYZ 1230 AM
FM 102.1 MHz



Tel 253-815-1212
Email : info@radiohankook.com
31919 1st Ave S, suite 206 Federal Way, WA. 98003



6학년 사철나무반 아미아 주 그레이(가운데)가 대상을 받고 있다. 성인입문반 프레시오사(가운데)가 특별상을 받고 있다. 심사위원들 모습.

아미아 주 그레이,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 말하기대회 대상 수상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 지난 3월 21과 28일 말하기대회와 시상식 연이어 개최 단순한 언어 능력 넘어 자신의 생각 자신 있게 전달하는 역량 키워왔다는 평가 받아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KSFW · 이사장 박영민, 교장 이재은)가 학생들의 한국어 표현력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교내 말하기대회와 시상식을 잇따라 열고, 참여와 성장의 교육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학교 측은 지난 3월 21일 교내 말하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3월 28일에는 시상식을 열어 학생들의 도전과 성장을 함께 축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과정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중계돼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학생들의 발표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말하기대회는 학령 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참여한 1부와 초등 고학년부터 중·고등 및 성인부가 함께한 2부로 나눠 진행됐다. 각 세션은 이재은 교장의 개회와 박영민 이사장의 격려사로 시작됐으며, 박영민 이사장, 이희정 전임 교장, 정찬국 운영위원, 이구 페더럴웨이 한인회 사무총장, 이재은 교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학생들의 발표를 심사하고 격려했다.

이번 대회에서 각 반 대표로 나선 학생들은 '나의 꿈', '나의 가족', '내가 한글을 배우는 이유' 등 자신과 삶에 밀접하

게 연결된 주제를 한국어로 발표하며, 교실 안에서 배운 언어를 실제로 표현하는 값진 경험을 쌓았다. 학생들은 발표를 통해 단순한 언어 능력을 넘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타인 앞에서 자신 있게 전달하는 역량을 함께 키워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3월 28일 열린 시상식은 학생들의 결과뿐 아니라 참여와 성장 자체를 축하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학부모들이 현장에 초청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박영민 이사장이 환영사를 통해 학생들과 가족들을 격려했으며, 이희정 전임교장과 이구 사무총장이 심사 총평을 맡아 참가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한국어 학습과 발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사위원들과 이재은 교장은 직접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학생들의 노력과 용기를 격려했다. 학교 측은 이번 대회가 단순히 수상 여부를 가리는 경쟁을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표현해 보는 과정 자체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KSFW는 특히 결과 중심보다 참여와 과정 중심의 교육 철학을 반영해, 수상 학생들에게는 상패를, 참가 학생 전원에게는 '자랑스러운 반대표' 목걸이를 수

여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고, 도전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6학년 아미아 주 그레이(사철나무반 · 지도교사 서미석)가 대상을 차지했으며, 10학년 이지은(무궁화반 · 지도교사 이은주)과 유치부 배지아(사과반)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대상 수상자인 아미아 주 그레이와 최우수상 수상자인 이지은은 오는 4월 11일 열리는 재미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말하기대회에 학교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우수상은 이아빈(PreK · 자두), 김다나(1학년 · 굴), 김한나(4학년 · 단풍), 이엔주 그레이(4학년 · 단풍) 학생이 받았으며, 장려상은 알리아 주 그레이(K · 자두), 박기래(1학년 · 감), 김제이든(2학년 · 굴), 강해린(3학년 · 굴), 김아라(4학년 · 단풍), 김리안(4학년 · 느티) 학생에게 돌아갔다. 특별상은 성인입문반 프레시오사가 수상했다.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참여와 도전, 성장 과정을 존중하는 교육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데 그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는 능력을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삼아,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글로벌 사회 속에서 건강한 미주 한인으로, 나아가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는 현재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교사와 9학년 이상 TA(보조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관심 있는 예비 교사는 이메일(info@koreanschoolfw.org)로 문의하거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교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학교 웹사이트(www.koreanschoolfw.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한국〉

Federal Way
병원 스페이스 렌트
253-941-6779
chachiropractic@gmail.com

Office space Rent for
L.Ac, DPT, LMT or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3Tx rooms, Reception area , restroom
Ask for Lease special !



워싱턴 한인 선교합창단 단원 모집

— Washington Korean Mission Choir —

🎵 모집대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과 선교에 열정이 있는 **크리스천** 누구나

📅 연습안내

🕒 연습 시간: 매주 주일 오후 5~7시

📍 연습 장소: 시애틀물댄동산교회

17620 60th Ave W, Lynnwood, WA 98037

📄 지휘 | 허정덕 목사

-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석사 졸업 (합창지휘 전공)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합창지휘 박사 과정 수료
- 現 시애틀물댄동산교회 담임
- 現 동지선교회 남쪽방송 Service Director



☎ 문의

조현숙 총무: 509-859-2844

37년 전통의 워싱턴 한인 선교합창단이 허정덕 목사^{와 함께}
새롭게 출발합니다! (1989년 창단)

워싱턴주 체육회 · 워싱턴주 대한사격연맹, 총기안전교육 실시

5월 2일 페더럴웨이 해송서... 권희룡 회장, 워싱턴주 체육회 맡고 첫 행사 기획 실무 경험 풍부한 전 · 현직 전문가들이 교관단으로 참여해 교육 전문성 높여

워싱턴주 체육회(회장 권희룡)가 2026년 출범 이후 첫 공동 행사로 워싱턴주 대한사격연맹(회장 정정이)과 함께 한인 사회를 위한 총기 사용 안전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총기 보관과 사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안전 의식을 널리 알리고, 한인 동포들이 총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정보 없이 보다 책임감 있게 관련 법규와 안전 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오는 5월 2일(토) 오후 5시, 페더럴웨이 해송(32703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에서 열린다. 주최 측은 최근 미국 사회에서 총기 사고와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지역 한인사회 역시 더 이상 총기 안전 문제를 남의 일처럼 볼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안전 교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워싱턴주 대한체육회와 워

싱턴주 대한사격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워싱턴주 대한사격연맹이 주관한다.

참가 대상은 18세 이상 남녀 누구나이며, 총기 및 사격에 관심 있는 한인 동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식사와 좌석 준비를 위해 사전 참석 여부를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단순한 이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총기 보관 요령 및 안전 관리 ▲워싱턴주 총기 보관 및 사용 관련 법규 ▲총기 사용법 및 총기에 대한 두려움 해소법 ▲총기 구매 요령 및 총기 휴대 라이선스 취득법 ▲사격 요령 및 사격장 사용 규정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총기 관련 경험과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교관단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더한다. 교관단에는 미국총기협회(NRA) 교관이자 Raven Security/Investigation 소속인 권희룡

씨를 비롯해, 전 미국 연방경찰 출신으로 현재 워싱턴주 법집행기관(WACJTC)에서 활동 중인 오린 크누슨, 전 카운티 경찰 출신으로 역시 워싱턴주 법집행기관(WACJTC) 소속인 스티브 벤틀리 씨가 참여한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가 총기 소지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총기를 둘러싼 현실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 안전적 기준을 정확히 전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내 총기 관련 사건과 사고가 빈번한 현실에서, 자기 보호와 가정의 안전, 그리고 지역사회 내 안전 문화 확산 차원에서도 올바른 정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워싱턴주 체육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체육과 안전, 커뮤니티 교육이 결합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사격연맹 역시 사격 스포츠의 건전한 보급과 함께 총기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



워싱턴주 사격연맹이 지난 2023년 실시한 신입회원 사격 교육 및 실습 모습.

며, 한인사회가 법과 안전을 기반으로 보다 건강한 총기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세미나 당일

식사와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206-200-1444(정정이 회장) <스포츠서울 시애틀>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시애틀코리아데일리
KBS Washington
스포츠서울 USA Sports Seoul SEATTLE
WOMAN'S haninsosik.com

2027년 서북미 통합업소록과 함께하세요!

통합한인업소록 리스팅 · 광고접수

업소록 광고를 신청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2 가지 혜택

1 전자신문에 무료 광고 게재

MS Media Group에서 워싱턴주 한인들에게 매주 전달하고 있는 전자신문에 무료로 광고를 게재해 드립니다.

2 웹사이트 광고비 50% 할인 혜택

MS Media Group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온라인신문에 광고하시는 분들께 광고비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광고문의 206.779.5382 / E-mail: ads@mhankook.com



페더럴웨이 짐 페럴 시장이 페더럴웨이 시청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경제개발부 메리디스 닐 국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통역을 맡은 박영민 통합한국학교 이사장.

"페더럴웨이가 범죄 26% 감소했다"

페더럴웨이시 1분기 한인 시정보고회, 지난 3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짐 페럴 시장 등 부서 책임자 직접 보고...비영리단체 보조금 마감일 4월 6일

페더럴웨이가 2026년 제1분기 한인 시정보고회를 지난 3월 26일(목) 오후 6시 30분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행사 운영과 통역은 박영민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 이사장(전 페더럴웨이 한인회 임원)과 통합한국학교 교사진, 노인회인 상록회 회원, 페더럴웨이 한인학부모협의회(KAPA) 등 지역 한인 커뮤니티 각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3대가 함께하는 한인회'를 모토로 내세우는 페더럴웨이인민회의의 지향은 행사장 곳곳에서 그대로 드러난 자리였다. 짐 페럴(Jim Ferrell) 시장이 환영 인사를 전한 데 이어 사회개발·경제개발·재무·공원사업·공공사업·경찰국 등 6개 부서 책임자가 차례로 나서 최신 시정 현황을 보고했다.

짐 페럴 시장은 환영 인사에서 "페더럴웨이시와 한인 커뮤니티의 관계는 미국과 한국 문화를 융합하는 모범 사례로, 이 지역 전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페럴 시장은 몇 주 전 한인회 신입 임원 취임식에 참석한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고 밝혔으며, 매주 직원들로부터 한인 커뮤니티가 한우리 정원을 즐겨 찾는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우리 정원 조성엔 힘

써 온 박영민 전 시장과 한인회 전체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사회개발부는 지역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두 가지 보조금 신청을 안내했다. 첫째는 시 자체 재원인 '휴먼 서비스 일반 기금(Human Services General Fund)'으로 약 62만 9천 달러 규모다. 둘째는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로부터 배분받는 '커뮤니티 개발 블록 그랜트(CDBG)' 공공서비스 항목으로, 올해는 10만 9,200달러가 배정됐다.

담당자는 작년보다 금액이 줄어든 데 대해 연방 예산 삭감의 영향을 언급했다. 두 사업 모두 마감은 4월 6일이며, 식품은행·보건·사회서비스 관련 단체가 신청 대상이다. 문의 사항이 있는 단체는 3월 3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기술지원 워크숍에 참석하거나, 담당자 앤젤리나 앨런 피시(Angelina Alan Pisi)에게 이메일로 연락하면 된다.

경제개발부 메리디스 닐(Meredith Neal) 국장은 페더럴웨이시 관광 웹사이트(visitfederalway.org) 개편과 함께 새로운 관광 마케팅 캠페인을 소개했다. 닐 국장은 대시포인트 주립공원 해안선, 한우리 정원, 그리고 지역 한국 식당들을 주요 홍보 포인트로 꼽았다. 특히 시는 '시애틀 푸드 디바(Seattle

Food Diva)'로 알려진 지역 음식 인플루언서 매건 로우(Megan Roe)와 협력해 페더럴웨이 한국 식당 5곳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닐 국장은 홍보에서 빠진 한국 식당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공원사업부 존 허튼(John Hutton) 국장은 6월 19~21일 사흘간 페더럴웨이 공연예술센터에서 FIFA 월드컵 기념 축제를 무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라이브 음악·음식·경기 중계 등 가족 단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예년보다 특별한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시가 작년부터 직접 운영하는 페더럴웨이 파머스 마켓은 올해부터 316가 공연예술센터 앞 도로를 폐쇄하고 타운 스퀘어 파크 사이 구간에서 열린다. 현재 40개 이상 업체가 등록을 마쳤다. 한편 허튼 국장은 이날 34년 근속 끝에 오는 5월 은퇴한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허튼 국장은 1992년부터 한인 커뮤니티와 협력해 왔으며, 한우리 정원 조성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경찰국을 대신해 나선 태데우스 호지(Thaddeus Hodge) 커맨더는 2024년 대비 2025년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26%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주요 항목

별로는 강도 52%, 상해 33%, 상업지구 절도 59%, 주거 침입 40%, 차량 절도 57%가 각각 줄었다.

특히 차량 절도는 2023년 2,306건에서 2025년 474건으로 급감했는데, 경찰 추적을 허용하도록 주법이 개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살인 사건은 2024년 5건에서 2025년 9건으로 늘었으나, 담당자는 통상 연간 평균이 10건 내외인 점에서 전년도가 이례적으로 낮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사업부는 남쪽 320가(1번 애비뉴~퍼시픽 하이웨이 구간)와 21번 애비뉴 SW 두 개 구간 대형 도로 포장 공사를 올여름 진행하며, 두 공사의 약 80%는 그랜트 자금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 내 광섬유 인터넷 케이블 매설 공사가 진행 중으로, 불편 사항은 시 공공사업부(253-835-2700)로 연락하면 된다. 한인사회 소식과 고(故) 권인아 씨 재판 결과 설명은 류성현 페더럴웨이인민회 회장이 맡았다. 류 회장은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권인아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킹카운티 검사장실과의 줌 미팅 결과를 전했다. 가해자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양측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타코마 인근 웨스턴 스테이트 호스피탈에 수용 중이다.

한인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워싱턴주 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섰다. 타코마·시애틀 한인회와 연대해 베트남·라오스 등 타 소수민족 커뮤니티와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3대가 함께하는 한인회'를 표방해 온 만큼, 이번 법 개정 운동도 노인 세대부터 청장년, 차세대 한인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어 박영민 이사장은 한인 커뮤니티의 낮은 투표 참여율을 강하게 지적하며, 투표 등록과 참여가 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권익 신장의 출발점을 역설했다. 페더럴웨이인민회는 올해 창립 17주년을 맞아 3월 7일 이취임식을 마쳤으며, 6월 한우리 정원 개장 1주년 기념 행사와 월드컵 연계 한인 상권 활성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행사 말미에는 한인학부모협의회(KAPA)가 직접 준비한 저녁 도시락 50개가 참석자들에게 제공됐다. 시정보고회가 열릴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 온 KAPA의 손길이 이날도 어김없이 따뜻한 마무리를 더했다.

차기 한인 시정보고회는 2026년 6월 18일(목) 오후 6시 30분, 페더럴웨이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아데일리 김승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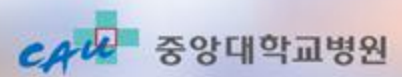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스포츠서울 USA WOMAN'S

MEDIA GROUP CORP.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

haninsosik.com



휴람 - 중앙대학교병원 해외동포 특별가 검진프로그램

2025.1.1. ~

휴람 고객만을 위한 맞춤형 검진프로그램

휴람 고객을 위한 체류기간 내에 빠른 진료 연계 제공



기본검진



남성검진



여성검진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해외동포특별가 프로그램 혜택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람 기본 항목

프로그램	검사항목
종합검진 기본항목	신체계측, 체성분분석, 안과(안압, 안저, 시력), 청력, 폐기능, 흉부촬영(전면, 측면), 심전도, 혈액형, 일반혈액, 간기능,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신장기능, 전해질, 당뇨(공복시혈당, 당화혈색소), 매독, 에이즈, 종양표지자(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남], 난소암[여], 유방암[여], 고지혈증, 요산, 갑상선기능, 소변, 식생활평가, 류마티스인자,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액상자궁경부암검사[여], 유방촬영[여], 여성호르몬[여]

휴람 남성 검진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검진가
휴람 남성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전립선초음파, 저선량 폐MDCT	1,071,000
휴람 정밀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전립선초음파, 저선량 폐MDCT + 뇌MRA, 심장초음파	1,836,000
휴람 VIP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전립선초음파, 저선량 폐MDCT + 심장초음파 + 복부골반MDCT,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비타민D, 골밀도 + 뇌MRI&뇌MRA, 동맥경화도, 남성호르몬 *픽업서비스(서울시내)	2,979,000
휴람 VVIP 검진 (2일간 진행)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전립선초음파, 저선량 폐MDCT + 심장초음파 + 뇌MRI&뇌MRA, 복부골반MDCT,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관상동맥 CT + 비타민D, 골밀도, 동맥경화도, 남성호르몬 + 뇌, 심장 정밀혈액검사, PET-CT(암정밀검사) *픽업서비스(서울시내)	4,622,550

휴람 여성 검진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검진가
휴람 여성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1,098,000
휴람 정밀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 뇌MRA, 심장초음파	1,863,000
휴람 VIP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 심장초음파, 골밀도, 저선량 폐MDCT + 뇌MRI&뇌MRA, 복부골반MDCT,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 동맥경화도, 비타민D,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픽업서비스(서울시내)	3,204,000
휴람 VVIP 검진 (2일간 진행)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관상동맥 CT + 심장초음파, 골밀도, 저선량 폐MDCT + 뇌MRI&뇌MRA, 복부골반MDCT,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 동맥경화도, 비타민D,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 뇌, 심장 정밀혈액검사, PET-CT(암정밀검사) *픽업서비스(서울시내)	4,847,550

휴람 특화 검진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검사항목	검진가
휴람 뇌건강 검진	혈액검사(당뇨, 고지혈증, 뇌정밀혈액) 경동맥초음파 + 뇌MRI & 뇌MRA + 알츠온 혈액검사 + 도파민 PET-CT	2,562,000
휴람 치매 검진	알츠온 혈액검사 + 뇌MRI & 뇌MRA & 해마 + 아밀로이드 PET-CT	2,230,000
휴람 심혈관 검진	혈액검사(당뇨, 고지혈증, 심장 정밀혈액) + 심전도 + 동맥경화도 + 경동맥초음파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CT	903,000
휴람 유전자검사	뇌질환유전자5종, 심혈관 5종 유전자검사 ※ 치매/심혈관검진 첫 시행 시 필요	각 132,000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 숙박필요시 병원인근숙소 제공 - 제휴 혜택 특별가 제공

교육칼럼

부활절과 자녀 교육



민명기

eWay 학원 원장

필자가 이 칼럼을 쓰고 있는 주간의 월요일 아침 CNN 뉴스에서, 미국 출신의 교황 레오 14세가 이란과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미국의 정치가들에게 일갈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내용이 방영되었다. 종려 주일(아래 설명 참조)에 거행된 미사에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전쟁을 거부하셨다. 그분은 전쟁을 자행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이러한 꾸밈음은 며칠 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모임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인 피트 헤그세스가 이란과의 전쟁을 십자군 전쟁과 같은 기독교적인 성전으로 표현한 기도, “우리는 전능하시고 능력이 크신 예수님의 이름에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 전쟁에서 어떤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기도한 것에 대한 힐책으로 보인다.

필자가 매주 연재하고 있는 다른 칼럼에서도 쓰인 내용이고 지금까지 전례가 거의 없기는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에서도 겹쳐 전해 드린다. 이 칼럼의 애독자께서 이 글이 실린 신문을 읽어 드시는 주말은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Good Friday(성금요일)

와 Easter(부활절) 사이의 어느 날일 것이다. 기독교인이 아니시라면, 많이들 들어 보았으나, 왜 그리 이름 지어지고 불리는지를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리라. 하긴,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왜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신 날을 ‘선한 금요일’이라고 하는지 고개가 가우뚱해지는 경우도 많으리라. 부활절을 맞으며, 우리 자녀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날에 대해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든다. 필자의 지인인 어느 학부모께서 “제가 기독교인도 아니고 한국에서 늦게 미국에 이민을 오다 보니, 미국을 비롯한 서양 문화의 기본을 이루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라 좀 걱정이 되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서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종교에 관한 내용들은 다루기 꺼려 하니 말입니다.”라며 한탄을 하신다. “그럼요. 서양의 철학, 예술 등에 표현된 내용들 중에 기독교적 배경을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 많지요.” 필자가 맞장구를 친 일이 생각나 이 때쯤이면 소개하는 글을 되새긴다.

부활절을 맞아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주초부터 시작해 독자들께서 이 신문을 펴시는 주말에 이르는 한 주간은 기독교의 큰 명절 주간이다. 성경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저녁부터 오는 토요일 저녁(부활절 전날)까지가 유월절 절기이며, 이것은 기독교의 고난주간과 궤를 같이한다. 고난주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따져 보면, 기독교의 정수들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지난 일요일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그 성의 주민들은 “호산나! 호산나!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를 외치며 예수를 환영한 종려 주일이었다(Palm Sunday). 기독교적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로마의 지배 하에서 유대 민족을 구해달라는 주민들의 외침이었으리라. 다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으로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함께하신 목요일 밤(Maundy Thursday)이다. 금요일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인데(Good Friday),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죄인들의 입장에서 죄를 사함 받은 이 날이 ‘선한 금요일’로 불리는 것이리라. 3일 뒤인 일요일은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인 부활절(Easter)로 기념한다. 이 한 주간을 크리스천들은 고난주간(Passion Week)으로 기념해 지킨다. 이 주간에 성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은 성화들의 주제로 빈번하게 사용되었음은 대부분 사실 것이다. 그중 위에 언급한 최후의 만찬을 다룬 그림들이 많은데, 그것의 배경이 된 성경 말씀을 읽어 보자.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갖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다. “저녁을 드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주인이나 방문한 손님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은 종들의 몫이었다. 발을 씻기신 이유는 같은 장에 1)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2)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없기 때문”이라고 말씀 하셨다. 이 관습을 깨는 과격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가? 더욱 마음이 아팠던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이 당신을 곧 배반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했다는 점이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다음 날 아침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자기가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부인을 할 터이고,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두 도망을 갈 것이며, 가롯 유다는 식사 후에 예수님을 30전에 팔아넘길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너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라는 물음이 필자의 귓가에 쟁쟁하다.

레오나르도의 만찬 그림을 감상할 때,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훨씬 정확히 작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희망이 앞서 언급한 학부모님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제부터는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해가 예견되더라도, 혹시라도 자신이 섬기는 이들의 배반이 염려되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 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발을 씻어 주는 삶의 태도를 견지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실천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세상 속의 천국일 것이다. 요즘 행해지고 있는 전쟁과는 아주 다른 말씀이며,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꼭 배웠으면 좋은 태도가 아닌가? (www.ewaybellevue.com).



큰 뜻과 보람으로 일하기 원하십니까? 대한부인회 간병인(Caregiver) 모집!

경쟁력있는 임금 \$22.63-\$26.97

좋은 베니핏 - 의료보험, 유급휴가
자유로운 근무 시간 - Full Time, Part Time
근무중 자동차 운행비 지급
경력, 자격증 소지자 우대

KWA 본사와 지부에서 신청서 접수와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253)535-4202 / www.kwacares.org/careers



〈타코마〉 실비아 리 (253)319-8646 sli@kwacares.org, 김혜연 (253)319-8652 hykim@kwacares.org

〈린우드〉 리나 정 (425)790-3565, (253)302-0202 Ichong@kwacares.org

〈웨디럴웨이〉 이경주 (253)656-3458 klee@kwacares.org, 송영정 (253)656-3445 ysong@kwacares.org

이성수(수필가·서북미문협회원)

진달래 꽃방망이

한국에는 지금 진달래꽃이 만발(滿發)하고 있다. 진달래꽃 방망이를 만들던 소년 시절의 추억이 떠오른다.

우리 집 머슴은 나무 집 위에 연분홍 진달래꽃을 가득히 엮고 집에 돌아왔다. 내가 어릴 때는 산에서 낙엽을 긁어다가 빨감으로 충당했다. 머슴이 해 온 나무를 부엌 창고에 부렸다. 부엌은 어머니의 전용 공간이었다. 부엌은 지금처럼 실내에 있지 않고 밖에 따로 있어 그곳에서 어머니는 무쇠 솥으로 밥을 지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부엌일을 하였고 쪼그리고 앉아 불을 쪼었다. 아궁이에서 소나무 삭정리와 잡목 등이 타면서 증기(蒸氣)가 지글지글 나왔다. 그 증기는 치마를 입은 어머니의 아랫도리(下體)를 아궁이의 댕돌과 황토(黃土)흙이 불 달았을 때 발생하는 원(遠)적외선과 합하여 부인병을 예방해 준다고 한다. 즉 원적외선이 인체에 닿으면 피부 속 4~5cm까지 일반 열보다 80배나 깊이 스며들고 세포를 미세하게 흔들어 혈액순환을 잘 시킨다고 한다. 피가 맑아져 부인병을 예방해 준다니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를 위시하여 그 당시 농촌 여인들은 부인병(자궁암)을 모르고 살았다.

나는 나무 집 위에 있는 진달래꽃을 골라 누나와 같이 예쁜 진달래꽃을 촘촘히 가지런하게 모아 꽃다발이 아닌 '꽃방망이'를 여럿 만들었다. 흑시 시들 새라 물속에 담가 놓고 감상(感想)을 하며 누나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나는 소년기에 동리에 내 또래의 남자가 없

어 누나 또래의 여자아이들과 같이 놀았다. 나보다 세 살 위인 누나와 누나 또래들은 나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 5~6명의 누나 또래들과 같이 늘 학교도 오갔다. 지금은 버스가 연락부절이지만 그때는 2km나 되는 등교 길을 걸어 다녔다. 누나들은 단발머리에 흰 저고리 검정치마 검정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다 여자들인데 나만 남자였다. 나는 누나들과 같이 자갈 깔은 신작로(新作路 지금의 국도)길을 조잘대며 터덜터덜 걸어 동리 입구로 접어들었다. 이 길은 작고 좁은 꼬불꼬불한 길이지만 오른쪽은 천수담 논이 웅기웅기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왼쪽은 낮은 야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들은 봄기운이 대지를 포근하게 감싸고 아지랑이 가물거리는 시골길을 건다가 길옆에 돌아나는 빠빠를 뽑아 먹었다. 그 달착지근한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짙레 순을 꺾어 먹기도 했다. 입에 넣으면 스프르 녹아 풋풋한 짙레 향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옆 야산에 지천으로 활짝 핀 진달래꽃을 따 먹었다. 아카시아 꽃보다는 덜 달지만 입안이 개운했다.

우리들은 500m가량의 소로(小路)길을 걸어 집에 오곤 했다.

누나들이 오는 일요일에 진달래 화전(花煎) 놀이에 간다고 했다. 화전은 진달래꽃을 넣고 부친 부침개이다.

어른들의 천렵(川獵)은 따라다녀 보았지만, 화전놀이는 처음이다. 천렵은 냇가에서 했지만, 화전놀이의 장소는 앞산의 계곡이었다.

화전놀이 준비는 나이 찬 처녀들이 했지만 심부름은 누나들이 하였다. 이 행사에 부인들은 양보하고 관여하지 않았다.

날씨가 따뜻한 일요일에 화전놀이 채비를 머슴이 바지개로 하나 가득 지고 출발했다. 짐은 양은 솔단지만도 2개, 무쇠 솥 뚜껑, 냄비, 사발, 접시, 칼, 도마, 수저, 양념 등등 오만가지이었다.

한참을 걸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물이 졸졸 흐르는 앞산의 계곡에 자리를 잡았다. 머슴은 도착하자마자 가지고 온 솔단지를 걸고, 물을 길어 오고, 소나무 삭정이를 꺾어 왔다. 진달래꽃을 찾아 말(馬)만 한 처녀들과 초등학교 여자애들은 무리지어 산등성을 올라갔다. 활짝 핀 진달래꽃을 보고 모두 탄성을 질렀다. 봄바람에 산들산들 흔들리는 옅은 핑크색의 진달래꽃은 수줍은 듯 고개 숙인 새댁처럼 아름다웠다.

잎이 피기 전에 꽃이 먼저 피는 진달래꽃은 흑독한 주위를 이겨내고 일찍 피는 강인한 꽃이다. 나도 누나들과 처녀들의 틈에 끼어 진달래꽃을 꺾었다. 봄바람은 살랑살랑 불어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산등성이에 오르니 시원한 미풍(微風)이 이마의 땀을 씻어 주었다. 진달래꽃을 따서 먹어보았다. 달착지근하며 약간 뽀으나 산뜻한 진달래 풍미가 입안 가득히 퍼졌다.

어느새 산에서 내려온 처녀들은 화병(花餅)을 부치고 점심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솔뚜껑을 거꾸로 얹어서 걸어 놓으니 영락없는 대형 프라이팬이 되었다. 밑에서 불을 지

폈다. 들기름을 조금 붓고 밀가루를 물로 반죽하여 진달래꽃을 넣고 부침개를 부쳤다.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산 계곡을 타고 퍼져나갔다. 동네잔치 집에서 풍기는 기름 냄새를 산속에서 맡으니 잔치 집 기분이 물씬 났다. 우리들은 부쳐내는 진달래꽃 화병(부침개)을 맛있게 먹었다. 들기름 향과 진달래 향이 어울려 환상의 맛을 복돋아 주었다.

나는 누나들을 따라 물이 졸졸 흘러가는 계곡에서 돌 밑에 숨어 있는 가재를 잡았다. 일급수에서 자라는 가재는 의외로 많이 잡혔다. 그 가재를 점심 반찬으로 요리를 했다. 고추장을 풀어 지져 놓으니 빨간 게 먹음직스러웠다. 식사 전에 나이 많은 처녀가 보리밥 한 수저를 퍼 계곡에 던지며 “고수레!” 하였다. 지금은 식사기도를 하지만 교회가 없던 그 시절엔 산신(山神)에게 먼저 고(告)하는 의식이었다. 고수레는 고조선시대 농사와 가축을 관장하는 고시(高矢)라는 신을 말한다. 세월이 흘러 고시(高矢)가 고시네, 고시네가 고시레, 고시레가 지금의 고수레로 바뀌었다. 즉석(直席) 요리한 가재찌개는 인기였다. 식사 후 우리들은 진달래꽃을 꺾어다가 꽃방망이를 만들었다. 뚱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훌훌하지도 않은 날씬하게 만든 예쁜 꽃방망이가 단연 1등감이었다.

누가 만든 것이 예쁜지 비교(比較)하면서 우리들은 열심히 솜씨껏 꽃방망이를 만들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선물하려고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

스캐짓밸리 튜립축제 1일 개막

서북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스캐짓밸리 튜립축제가 4월 1일 개막하지만 올해는 평년보다 빠르게 개화하면서 주요 농장들이 3월 말부터 방문객을 맞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겨울이 유난히 온화했던 영향으로 튜립 생육 속도가 빨라졌으며, 공식 개막일인 4월 1일보다 앞서 루젠가드 등 4개 주요 농장이 모두 문을 열었다. 튜립 농장 '튜립 타운'의 레이첼 스파머서 대표는 “올겨울은 매우 온화했으며 튜립은 날씨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현재는 개화 초기 단계이지만 색상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표 농장 루젠가

드의 브렌트 루젠 농장주는 “4월 첫 주말이면 들관 전반에 걸쳐 선명한 색감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제 관계자들은 보통 4월 중순 방문을 계획하는 관광객들에게 일정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니콜 루젠 축제 디렉터는 “평소 중순 방문을 계획했다면 최소 일주일 정도 앞당기는 것이 좋다”며 “지금도 이미 아름다운 시기”라고 말했다. 튜립 농가들은 다양한 품종을 시차를 두고 심어 개화 기간을 늘리지만, 실제 만개 시기는 결국 날씨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는 특히 3월 강수량이 평년의 거의 두 배에

달해 튜립 생육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방문객들의 이동에는 불편이 예상된다. 주최 측은 농장 방문 시 장화를 준비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지난해 튜립 축제에는 약 5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으며, 지역 경제에 약 5,5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역 호텔, 식당, 소규모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튜립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봄 나들이를 계획하는 한인 방문객들도 일정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2~3주가 가장 아름다운 절정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조이스애틀뉴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레지나 채
킹카운티 멘탈 헬스 카운슬러

성향(Tendency) 1

Character와 Personality의 차이점은 보통 말하는 성격은 Personality를 쓰고 “인성” “성품”이란 표현을 할 때는 Character를 쓰는 게 적절하다.

사람들에게는 타고난 기질(Temperament)들이 있는데 기질은 각자가 갖고 있는 특성들의 결합을 말한다.

걱정이 많은 성격이 있는데 영어로는 (Worrywart, Overthinker)라고 하는데 보통 이러한 성격들은 어릴 적부터 자라온 과정에서 가정의 불화로 정서적 도움을 못 받고 살아오게 된 사람들에게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은 부모의 불화로 늘 불안한 상태의 삶의 과정을 겪게 되면서 성인되어서도 불안감에 세상을 잘 믿지 못하고 새로운 환경이 두려울 수가 있고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불안감이 생겨 말도 더듬게 되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이 없어지며 의도한 생각이 아닌 말들이 또는 헛말들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

왜?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올 테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불안감으로 인한 상황에서 평상시와 다른 상황이 생기면 불안감 때

문에 그 자리에서 움직여서는 안 되는 생각에 사로잡혀(늘 스스로 그대로대로 멈춰라라는 지시를 받는다) 그리고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뜻하지 않는 과격한 행동이나 말로 위협하기도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그럴 수가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에도 원만한 사회관계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

남편 때문에 사는 동안 편안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다 자랐으니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여자를 만났다.

늘 불안한 삶의 남편하고 30여 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매사의 대화에 부정적이고 남을 믿는 것이 어렵고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되면 온갖 이유로 그 자리를 피하고자만 하는 남편과의 삶을 살다 보니 아내가 얻은 것이 두통과 환병이 생겼다고 한다. 아내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도전을 쉽게 받아들이며 문제가 생겨도 문제에 주저앉기보다는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며 새로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성격인데 남편은 무슨 일든 어떤 상황이 펼쳐질 기미가 보이면 우선 불안감에 안 될 것만 생각하면서 매사에 돌다리도 조심조심 두드리다가 (웬만큼 조심스러운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건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본인이 두드리던 돌다리를 건널까 말까?

오랫동안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여기가 좋사오니”라며 제자리로 돌아가서 주저앉아 버리는 절대로 변화를 원치 않는 스타일의 삶을 살아온 터라 아내인 00씨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했는데 아내가 혼자서 결정을 하려 해도 그 결정이 잘못되어진 생각임을 증명하여(상상을 통하여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만 뱅뱅 돌게 만드는 머리가 지끈거리게 만드는 특별한 은사의 주인공이라며 남편은 아내의 생각과 고민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을 예로 들어가며 결국은 그 누구도 아무것도 안 해야만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오다 보니 삶이라는 게 어디 그런가? 세상이 움직이는데 가정에도 새로운 상황이 생겨서 무엇인가를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면 남편에게 배어 있는 삶의 기질(Tendency), 부정적인 상상력이 동원되어 없는 또는 생길 수도 있는 불안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내어 아내의 생각에 제동을 걸어 새롭게 벌어질 상황으로 인하여 생길 일들을 구체적으로 상상 연출해내면서 새로운 상황이 맞닥치는 일을 피해 보려는 남편

을 대할 때마다 아내인 00씨는 남편의 불안감에 넘어가지 않으려 본인 스스로 아니야! 이 남자의 불안의 상상이 또 시작인 거야! 내가 이것에 빠지지 말아야지!

정신 차리자!

라며 단단히 고삐를 동여매며 무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는 남편이 애인처럼 끼고 사는 “불안열차”에의 동승을 거부하며 늘 혼자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며 매사를 결정을 하다 보니 늘 머리가 아프고 화가 가슴에 남아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고 잠도 못 자고 소화도 되지 않아 소화 질환에도 이상이 오고 당뇨병도 생기고 만성두통에 시달려 이제는 아이들도 다 크고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아가고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여자였다. 선생님, 아 정말 지긋지긋해요.

뭐라도 새로운 것을 하려면 남편하고 싸워야 하니 세상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인생인데 남편의 협조나 남편의 건설한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데 남편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니 새로운 상황을 생기거나 만들어야 하면 적군하고 싸우기 전에 먼저 집 안에 있는 남편하고의 전쟁을 해야 하니 휴우! 이제는 남편의 모습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거린다.

(다음 호에 계속)

안정된 회사, 유능한 전문가와 함께라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쉬어집니다.

- IRA / Roth IRA / 401(K) *
- 뮤추얼 펀드 / Brokerage Account *
- 평생연금 - Annuity **
- 은퇴계획 - Retirement Plans
- 상속계획 - Estate Planning
- 개인&비즈니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for Personal & Business
- 간병보험 - Long Term Care
- 생명보험을 활용한 학자금 플랜-College Funding using Life Insurance

* products offered through Registered of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and a New York Life Company.
** Issued by New York Life Insurance and Annuity Corporation,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The Million Dollar Round Table (MDRT), The Premier Association of Financial Professionals, is recognized globally as the standard of excellence for life insurance sales performance in the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industry.

2024



178년 역사의 뉴욕라이프 성공 노하우를 전해드립니다.

김수현 (BILL "SUHYUN" KIM)

Registered Representative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Agent

Mobile 253 802 2550

* Registered Representative offering investments through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증권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Insure. Prepare. Retire.

Be good at life.



종교칼럼



저자 나은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136장 고난 찬송을 부를 때면 가슴이 온통 떨리고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고난 주간이다. 이 주간에 나는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강같이 흐른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때가 이르면 무서운 심판이 이를 것이다.”라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뒤를 돌아보시고 애 통하며 좇아오는 여인들에게 부탁하셨다. 겹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시고 진액을 짜며 기도하셨건만 제자들은 그 안타까움을 알지 못하고 피곤한 육신으로 고단한 잠을 깊이 자고 있다가 주님이 이제는 쉬라고 할 때에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영광을 알았다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보고 난 후에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모두 순교하는 용감하고 훌륭한 제자들이 되었다. 그들이 담대하게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은 부활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그들

을 속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빨리 죽고 싶다고 노래하는 사람도 건강을 위해 보약을 먹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최후의 시간으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이다. 모두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잠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 되었다. 고난은 잠깐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영광의 부활이 있으리니 잠깐 사는 나그네 생활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라고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말씀하셨다. 과연 그분은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고 본을 보이셨다. 나도 과거 목회할 때에 장로님 아내들과 두 여성교회장을 집에 초청하고 맛있는 해물탕을 끓여 대접하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나도 본이 되려고 결심하니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부탁을 하였다.

어떤 말썽꾸러기 성도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는 저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은 어느 교회나 사모의 안타까운 마음일 것이다.

사모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기도로 사모가 되어 긴 세월을 살아오며 정말로 죽고 싶어서 깊은 밤에 성전에 찾아가 몸부림치며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고난의 시간들을 다 통과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평강과 희락의 날들로 보상을 해주셨다.

내가 주 안에서 철저히 죽기만 한다면 고난은 나를 어찌지 못하리라. 가치 없는 죄인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귀한 목숨을 버리신 그 마음을 내가 사모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찌 깨달을 수가 있으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아름답게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때까지 소망을 갖고 오래 참고 바라고 견디며 해산의 수고를 하여 그가 감사하고 효도할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는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좋은 열매가 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날마다 달리가 오르고 있고 교회를 폐쇄한다는 어이없는 소식이 들려오고 세상에는 더 무서운 질병이 창궐하고 있다고

하는 세계는 참으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어지러운 혼란 속에 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며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배척할 것이라고 하셨다. 이사야는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고 방법을 묻지 않고 어느 때까지냐고 질문을 했다. 세상이 다 망하고 황폐해질 때까지라고 하셨다. 그때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죄 속에서 허덕이면 이 땅에서도 고통이고 죽어서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영원히 허덕이게 될 것이다. 때가 악할수록 악을 행하는 사람은 더욱 악하게 살 것이고 진리를 찾아서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리라.

“주님, 내 두 손을 꼭 붙들어주소서. 나는 너무 악하고 연약하고 두려워 땀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면 나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종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 밑에서 떨며 연약한 나는 주님께 간절히 호소를 드린다.



레이븐 경비회사/ 레이븐 공인탐정사

현재 호텔/모텔/상가/건물/빌딩 관리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문제가 있으신가요?

민사 · 형사소송 사건증거수집업무	배우자	종업원
개인 신원조회업무	학력	범죄

레이븐 공인탐정사에서는 24시간안에 사람을 찾아드립니다. 못 찾을 시 의뢰비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레이븐경비회사로 연락주세요.
Tel: 253.353.3663 / Web : WFPDICI.com

RAVEN LEGAL TASK FORCE
RAVEN SECURITY ENFORCEMENT AGENCY #858
ARMED SECURITY PRINCIPAL #79760
RAVEN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2037
RAVEN ARMED PRIVATE INVESTIGATOR PRINCIPAL #4036

휴람칼럼

"건강한 삶" '자기 혈관 숫자' 부터 챙겨야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혈관 건강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순환기내과 최규영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건강하게 지치지 않고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에너지보다 이를 뒷받침할 '혈관 건강'이라는 기초 체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엔진을 가진 차라도 연료가 흐르는 관이 막히면 결국 멈춰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혈관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6명은 이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이거나 전(前) 단계에 해당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0~40대의 경우 자신의 혈관 상태에 대한 인지가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잦은 야근,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MZ세대의 혈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손상되고 있다. 실제로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던 30대 초반 남성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까지 발생해 에크모(ECMO) 시술과 심장혈관 스텐트 삽입술 후 가까스로 생명을 건진 사례가 있었다. 발병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흡연,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방치해온 고콜레스테롤혈증이었다. 이는 심뇌혈관질환이 더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며, 젊을 때부터 자신의 혈관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생존의 문



제를 시사한다. 혈관 건강의 관리는 정확한 '수치 확인'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혈관이 안전한지 가장 빠르게 점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를 '자기 혈관 숫자'라고 부른다. 바로 △혈압 120/80mmHg 미만 △공복혈당 100mg/dL 미만 △총콜레스테롤 200mg/dL 미만이 기준이다. 자신의 수치가 '120/80 · 100 · 200'이라는 기준에 충족하는지 기억하고 끊임없이 관리해야 한다.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질혈증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젊을수록 '나는 괜찮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방치하기 쉽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혈관이 건강한 것은 아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

태로 지속되면 혈관 손상이 누적돼 어느 순간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활력 넘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자기 혈관 숫자'를 통해 자신의 혈관 상태를 정확히 마주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금연, 절주,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적정 체중 유지와 함께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미 진단받은 만성질환은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 또한 응급 증상을 미리 숙지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심뇌혈관질환은 국내 주요 사망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MZ세대를 포함한 모든 연

령층이 지금 바로 자신의 혈관 숫자를 확인해 보길 권한다.

■ 도움말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순환기내과 최규영 전문의

"건강한 삶 '자기 혈관 숫자'부터 챙겨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에스더 나 이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 선정 - 진료 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206-779-5382(에스더 나 이사)



김용석 (Bruce Yongsuk Kim)

Agent,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Cell. (206) 371-4620

Email. ykim13@ft.newyorklife.com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중서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는 중관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SMRU1877550 ©2017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51 Madison Avenue, NY, NY

안정적인 재정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도나 안내서는 필요없습니다.

평생연금* 은퇴계획 상속계획
생명보험 연금보험 간병보험

가장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은퇴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Insure. Prepare. Retire.

Be good at life.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규호 회장 등 참석자들이 강연에 귀 기울이고 있다.

"K문화 · K방산, K미래산업 속 자신의 길 연다"

민주평통 시애틀 청년 컨퍼런스, 지난 3월 28일 주시애틀총영사관에서 열려 KBS 드라마 한영미 작가 참석 오징어게임 탄생 비화 공개해 청중 눈길 끌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애틀협의회(회장 황규호)와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한 '차세대 리더를 위한 청년 컨퍼런스'가 3월 28일 주시애틀총영사관에서 열렸다. K방산과 K문화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두 분야의 현장 전문가가 강연자로 나섰다. 워싱턴주 8선 하원의원 신디 류도 자리해 축사를 전했다. 행사 사회는 민주평통 청년위원 장세민이 맡았다.

황규호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의 만남을 통해 청년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문화적 역량과 첨단산업의 발전상을 깊이 이해하고, 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회장은 이어 "이러한 작은 배움과 공간이 쌓여 언젠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큰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은지 총영사를 대신해 박미조 부총영사가 참석해 격려사를 전했다. 박 부총영사는 "K방산과 K문화는 단순한 산업 분야를 넘어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기술과 창의성이 결합된 이 분야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 준비에 헌신한 이유진 청년분과위원장도 개회사에서 감사 인사를 받았다.

워싱턴주 제32선거구 8선 하원의원 신디 류는 영어로 축사를 진행하며 자신의 이력을 소개했다. 류 의원은 "시의원 선거에 세 번 출마해 한 번만 이겼지만, 동료 의원들이 시장으로 선출해

줘 미국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여성 시장이 됐다"고 밝혔다. 이후 주하원에서 8번 당선돼 현재 16년째 재직 중이며, 현재는 경제개발·재향군인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류 의원은 워싱턴주 최신 현안을 청중과 공유했다. 올 여름 시애틀과 캐나다 밴쿠버를 합쳐 13경기가 열리는 FIFA 월드컵을 언급하며, 컨퍼런스 이틀 전 서명된 워싱턴 관광진흥법(HB 2325)을 소개했다. 이 법은 16년 만에 관광 마케팅 예산을 실질적으로 복원하며 문화 행사 지원도 포함한다. 또 흑인 커뮤니티의 주거·교육·경제 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재투자 프로그램(HB 2523)이 4년간의 노력 끝에 법제화됐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특히 "드론, AI,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주(州) 권한 침해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는 뜻도 밝혔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KBS 드라마 작가 한영미는 K문화의 세계적 성공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현장 작가의 눈으로 풀어냈다.

한 작가는 오징어게임의 탄생 비화를 공개해 청중의 눈길을 끌었다. "황동혁 감독이 원래 영화로 만들려고 대본을 갖고 다녔는데 어디서도 투자를 받지 못했다. 넷플릭스가 영화 대신 드라마로 만들라는 조건으로 투자를 결정했고, 감독이 이를 드라마로 늘려 쫓겠"이라고 설명했다. 회차별 분량이 45~60분으로 일정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며, "한국에서 규격 안 맞다고 부정적이었는데 오히려 그 자유로움이 세계를 열광시켰다"고 말했다.

기생충, BTS, 오징어게임으로 이어지는 K문화 연속 성공의 이유로는 한국인 특유의 이야기 능력을 꼽았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같은 한국 전통 놀이를 소재로 쓴 게 전 세계에서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가 세계인의 눈에는 완전히 새로웠다"는 설명이다. 이달 초 광화문에서 열린 BTS 공연에 전 세계 팬들이 몰려 교통이 마비됐고, 1~2일 만에 수조 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됐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한 작가는 K문화의 역할을 남북 소통과도 연결했다. "북한에서도 우리 드라마를 몰래 본다는 얘기가 들린다. 정치적 소통이 막혀 있어도 이야기는 국경을 넘는다"며 "미국 국적을 가진 해외 동포들이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게 남북 소통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상은 달라도 정서는 같은 한민족"이라며, 공감을 이끌어내는 이야기가 통일로 가는 가장 부드러운 길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창작 분야 진로와 관련해서는 "요즘은 유튜브, 쇼츠,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어 누구나 감독이 되고 배우가 될 수 있다"며 "K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세계와 소통하는 창작자가 될 수 있다"고 독려했다. 한영미 작가는 질의응답에서 AI와 창작의 관계에 대한 솔직한 견해도 밝혔다. ChatGPT에 '시원'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고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한 작가는 "자료 조사는 보조 작가가 1주일 걸릴 분량을 10분 안에 해준다. 하지만 대본을 나눠달라고 하면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럴 듯하지만 흥미롭지 않은

이야기가 나온다.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평했다. AI 영화 제작 경험도 소개했다. "건물 붕괴, 홍수 장면 같은 대형 시각 효과는 뛰어나지만, 배우의 눈물이나 섬세한 감정 표현은 AI가 따라오지 못한다. 인간의 영역은 따로 있다"는 결론이다.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이 K콘텐츠 IP를 독점하는 구조적 문제도 거론됐다. 한 작가는 "넷플릭스는 제작비에 10~20%를 얹어주는 대신 모든 저작권을 가져가는 구조다. 오징어게임 감독도 작품을 세계적으로 히트했지만 정작 큰 돈을 벌지 못했다"며 "국내 제작자들이 대안 플랫폼을 만들려 하지만 자본력의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국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한 작가의 대표작으로는 SBS '해피 시스템즈'(120부)와 KBS '우아한 계국'(100부)이 있으며, 현재 새 드라마와 미니시리즈, 공연 작품 등 여러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두 번째 순서로 강단에 선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안수빈 부장은 K방산의 성장 과정과 현재 한미 방산 협력 구조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전달했다. 안 부장은 대한항공에 18년째 재직 중이며, 기계공학 전공 후 5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사업개발·방산 수출 분야로 전환, 무인기 사업의 국내 수주 70% 이상을 담당할 팀에서 활동해왔다.

안 부장은 먼저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 본부의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보잉 및 에어버스 항공기 구조물 납품, 무인기 개발·생산, 그리고 주한미군·

주일미군 전투기와 헬기에 대한 MRO(정비·수리·개조) 사업이 핵심이다. 특히 부산 테크센터에서는 40년 이상에 걸쳐 F-15, F-16 등 5,500여 대의 군용기를 정비해 납품해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K방산 수출의 물꼬를 튼 과정도 소개됐다. 안 부장은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 인접국 폴란드가 한국에 SOS를 치자 기회가 열렸다는 설명이다.

미국 국방부의 RSF(역내 지속지원체계)와 PIPIR(인도태평양 산업 복원력 파트너십) 정책도 소개됐다.

안 부장은 "코로나 이후 미국의 방산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동맹국과 함께 산업 기반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됐고, 대한항공이 패스파인더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CCA(협력전투기) 프로그램에 향후 5년간 9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분야에서 AI 엔지니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 부장은 "미국 방산업체에 취업해 한미 협력의 실질적 연결고리 역할을 해달라"고 청년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질의응답과 네트워킹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방산, 콘텐츠, AI 등 다양한 분야의 진로 가능성을 놓고 두 강연자 및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행사를 준비한 이유진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장은 "오늘 자리가 청년들에게 단순한 강연을 넘어 실질적인 진로의 힌트와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아데일리 김승규 기자>